



서울大同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35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10월 15일

[1]



운동장 접수후, 차량계를 통해 모교 외벽을 따라가다 개울과 다리건너 제4야영장을 지나서 안양수목원으로 가는 등산로.(사진 시계방향으로)

가자, 서울대인의 요람 관악산으로...

관악산추천

외국의 어느 도시를 다녀 보아도 서울처럼 아주 가까운 근교에 아름다운 산이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서울은 복판은 도시라는 말을 들을 만 하다. 유럽의 대도시만 해도 한없이 펼쳐져 있는 평야지대에 웅하니 뭇뭇하게 자리잡고 있어 서울만한 운치는 없다.

서울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도 가벼운 복장으로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산에 오를 수 있다. 북한산, 청계산, 도봉산, 불암산, 남한산성 등은 물론이고 서울대학교가 자리잡은 관악산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천혜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

다. 산을 오르는 코스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내뿜는 향기와 자태도 제각각이어서 산을 오를 때 마다 색다른 운치를 느끼게 한다.

특히 서울대의 요람인 관악산은 그 우람한 산세와 더불어 영재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명산임에 틀림 없

마음 설레이는 등산대회

다. 총동창회에서는 개교를 기념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10월 26일 등산대회를 열기로 했다.

수많은 동창들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이와 같은 등산대회가 가장 적격이다. 몇년동안

못만났던 동창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관악산의 가을 정취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모처럼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와 모교의 발전된 시설도 살펴보고 관악산의 정기도 느끼면서 동창간의 단합을 도모하자. 광활한 교정에서 서로 만나 동창의 정을 돈독히 하면서 관악산의 계곡과 오솔길을 따라 정상에 올라 서울대인의 기상을 한껏 펼쳐 보자. 산을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야말로 일석삼조, 사조가 되리라.

이날 하루만큼은 모두가 자연의 품속에서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구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등산대회에 대한 기대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均)



제4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열어

「관악은 하나」「경쟁속의 화합」「승부 뒤의 우정」이라는 기치 아래 「제4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개최식이 10월 1일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개최됐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閔丙

峻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朴聖玟학생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40개팀은 페어플레이 정신과 순수 아마추어 정신을 보여 줄 것을 다짐했다.

閔丙峻부회장은 金在淳회장

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야구경기의 팀워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젊음의 이상과 열정이 서울대인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으로 승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회 우승팀인 전주 완산고 선수대표 선수가 있었으며,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이번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본회 「인터넷 사이트」 구축 12월 시험개통...동문소식 검색



BLUNET 張사장(左)과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이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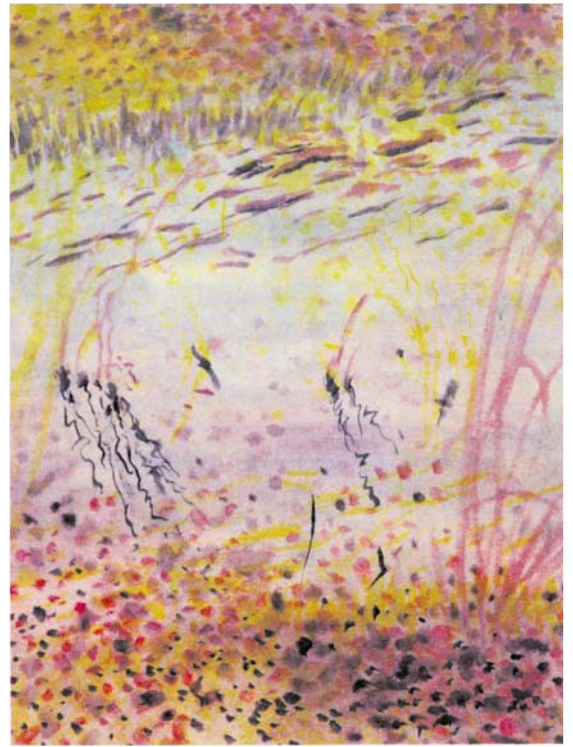
본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내의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문상호간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snu.or.kr)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인터넷 전문업체인 BLUNET(대표 張濤鎮·86년 師大卒)과 무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본회에서 구축할 인터넷 사이트는 각 단과대학(원) 및 직장·지방·해외지부 소식은 물론 동창회보 게재, 동창회 사업안내 등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동창회와 동문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토록 자료를 보강해 오는 12월 시험단계를 거쳐 개통할 예정이다. (變)

미술작품

李敬子 作



「야습관조 96-12」, 48.5X37.3cm, 순지에 수묵담채, 1996.

(작가 약력)

△61년 미대 졸업

△59년 미술전람회 9회

입선

△80~96년 개인전 4회

△81~82년 미협전

△82~97년 한국화회전

△93~97년 동경초대전

△97년 현대미술 한일 초

대전

△현재 미협, 한국화회 회

원

주요목차

모임탐방 6면

大韓三樂會·색동회

기획탐방 8면

(주)세프라인

화제의 동문 9면

金 石·金龍雨동문

동문을 찾아서 13면

安熙玉 서울시 여성정책보좌관

10월 26일 등산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출발

“가족동반의 하이킹 코스.....푸짐한 점심과 경품이 기다려”



멋진 이 가을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펼쳐질 이번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6일 거행됩니다.

푸짐한 먹거리와 경품, 그리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줄 흥겨운 한마당도 준비돼 있습니다.

모처럼 학창시절의 옛 정을 되찾는 자리가 될 것이오니 많이 나오셔서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 내 말 씀 ♣

◇일 시 : 10월 26일(日) 오전 9시 출발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가족

◇산행코스 : 관악산계곡→모교 농생대 수목원(안양유원지 뒤편)

◇참가비용 : 없음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 다량의 선물 추첨

◇문의전화 : 702-2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회라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평균치 이상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력의 소유자라고 자부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동 관심사의 백미인 정치면에서 나름대로 양보할 수 없는 소신을 갖고 있을 것이며 기타 분야에 대해선 일반 상식의 수준 이상일 것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올바른 입장에서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계실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안타까워

세상 일 돌아가는 양을 보면 어쩌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가는지 한심스러울 것이며 도대체 어쩌면 그리 생각들이 짧고 모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분야에서 한 일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만 한 사람이(양심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 세상 일이 당신의 사고 방식을 따른다면 해결 안될 일이 없을 것이라 자부하면서 기회있는대로 남과 대화할 적에 당신의 사상을 강요하고 계실 것이다.

요컨대 당신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겉으로는 겸손함을 보이기 위하여



누리나무광장



李年憲
MBC제작이사

당신 생각의 불확실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간혹가다가 참을 수 없는 사명감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때로는 당신이 당신의 연령 층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설령 실수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신 경우만큼은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당신이 속하는 분야에서 그렇다. 도대체 당신만 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딱 일은 당신보다 나올 수는 있어도 생각만큼은 당신 생각이 이 분야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살아오는 동안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나 직책은 모르긴 몰라도 당신 만큼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실 것이다. 어쩌다 남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난한다고 느꼈을 때 당신은 반성보다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실 것이다.

조건이 없는 도움이라야 정상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란 나를 질시하거나 방해하는 쪽에서만 서 있다는 진리를 확인할 뿐인 것이다. 당신이 사회와 주변으로부터 받은 것 보다는 당신이 베푼 것이 더 많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사실은 당신 정도면 주변으로부터 좀더 많이 조건없는 도움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주장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소외시킨 채 잘못된 중심축을 형성하며 나가는 한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한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세상사람 전부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한다. 의사가 많은데 환자는 왜 낫지 않을까?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대선후보의 연예프로그램 출연

元佑鉉(65년 法大卒)방송위원회 선거방송특위 위원장



텔레비전의 인기스타 대열에 대선 후보들까지 가세하여 한 몫을 해보려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하는 「아침마당」에서 대선 후보의 서민적 소탈함과 자질을 보이는 「식사 나르기」, 「시장에서 호객하며 물건 팔기」, 「물류운반」 등의 재미있고 유익한 연기력을 서로 뽐내면서 시청자를 즐겁고 흥미있게 해주었다.

인기스타 대열에 가세

대권을 거머쥐겠다는 후보들

의 작은 모습에서 서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편하다고 안도하며 위로를 삼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지도자의 다른 면을窺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제15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10시 임성훈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함께」 등 토크쇼를 비롯한 각종 연예오락 교양물의 출연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선거특별규정 제19조 「후보자 방송제한」, 제70조 「광고방송의 제한」 규정을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각성시켜야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는 세월」이나 「하숙생」같은 인기 가요를 국회의원 후보자가 방송사에 출연한 실질적인 효과를 준다고 해서 제제한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나 당연한 금지 규정이다. 문제는 적용 심의기준 법적 타당성의 논란보다 대선 후보들의 텔레비전 출연으로 인기를 얻겠다는 이색

적인 풍경이 벌어지는데 있다.

박찬호, 강부자, 채시라 등 인기를 먹고 사는 대중문화의 스타들은 인기로 영합하여 주가를 올리는데 고뇌하기도 하고 환희를 만끽하기도 하는 직업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국가 경영과 철학을 지닌 우리의 지도자이여야 함으로써 역사관, 국가 경영능력, 종합적 판단력,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등 핵심적인 선택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대선후보가 개인의 영달이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신뢰받고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 이 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며 유권자가 제자리를 찾도록 각성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연예오락프로그램의 90일 전 출연금지 조치는 정치가 회화되고 선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데 한 몫을 해내는 부작용과 대선후보들의 인기스타화를 막는 적절한 조치인지는 우리 모두 지켜볼 일이 아닐 수 없다.

大韓三樂會

모임 探訪

색 동 회

도덕성 회복에 원로교육자 힘 모아

『大韓三樂會』는 평생을 교육을 위하여 교단에서 또는 행정에서 헌신 봉사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교육자들의 전국적 조직단체로 69년 설립됐다. 지난 97년 1월 1일자로 대한삼락회 14대 회장에 취임한 黃哲秀(51년 師大卒·前경기도 교육감)동문을 만나 현재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大韓三樂會」명칭의 의미는.

『三樂은 孟子 중 「君子有三樂 父母具存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에서 온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즐거움을 師道之樂으로 하여 현대적으로 고찰해 볼 때 우리가 걸어온 교육의 길에서 스승이 되어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친다는 고귀한 성직에 종사하는 즐거움, 가르치며 또 학문하는 교육상장의 즐거움, 조국의 내일을 빛낼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을 길러내는 즐거움의 세 가지 樂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三樂회원은 이 세가지 樂을 긍지와 보람으로 삼아 여생을 조국의 교육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활동은.

『69년 9백여 회원으로 창립된 三樂會는 현재 시도별 16개 지회와 시군별 1백

40여개의 분회에서 7천여명의 회원이 교육발전과 사회도덕 수호, 사회질서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여년에 걸친 三樂會의 활동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인륜상으로, 사회적으로 원로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을 미루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활동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회원들이 연로해 건강이 문제입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일 안하면 늙다고 말하죠. 교육자의 세가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신건강은 기본이기에 부서별 활동을 통해 여학부, 등산부, 요산부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언제나 그랬듯이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교육은 너무 기능인을 만드는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도덕성 회복과 정신순화 교육에 방향을 맞추고 효행 모범어린이 표창과 청소년 한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통일 후의 북한 어린이 교육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으로 어린이 사랑 실천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릴적 꿈을 50여년간 어린이와 함께 하며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8대 색동회 회장에 취임한 崔泳一(56년 獸醫大卒·국제와이즈맨 한국협의회 사무처장·서울YMCA국제친선위원)동문은 50년대부터 동화구연으로 어린이 사랑을 실천해 왔다.

한국일보(58년)·동아일보(64년) 주최 동화구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능력을 인정받은 崔동문은 두 대회의 입상자들을 모아 「이야기 동산회」를 창설하고 학교, 유치원, 고아원 등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 다녔다.

색동회는 33년 소파 선생 등 8명이 창설한 「어린이를 위한 어른들의 모임」으로 崔동문은 69년 확대총회시 「이야기 동산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해 실행위원과 부회장을 역임했다.

『어릴적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치관 교육의 첫단계임에도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쁘고, 초등학교부터 학원이 다 과외다 하며 뛰어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TV가 교육을 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폭력적·성적 문화에 너무 노출돼 있고 형제 없이 혼자 자라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와 어린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어른들에게 「어린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며 어린이가 제대로 자라야 미래가 밝다」는 소파의 遺志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색동회는 어머니·아버지·선생님 동화구연대회를 통해 어린이 문화교육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이들을 찾아냈으며, 이들이 보육교사 양성코스, 백화점문화센터, 대학 사회교육원 등 각처에서 동화교사를 양성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



崔泳一회장

다.

색동회는 미술·음악·무용·연극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기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소질을 개발할 공간인 「색동회관」을 소파 탄생 1백주년이 되는 99년에 건립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색동무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민족 고유의 무늬로 어린이들은 색동무늬처럼 맑고 밝게 자라야 합니다. 색동회관 건립은 색동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교육과 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4백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색동회는 직접 참여하진 못하지만 어린이 문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시키는 「회원확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崔동문은 『어린이 문화 운동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색동회관」 건립은 회원들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국민적 관심과 국가와 기업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락처: 3141-5504) (元)



지난 9월 교총회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黃哲秀회장).

지 부 순 례

인도네시아 지부

단과대 뿔뿔 뿔쳐 「서울대인의 밤」 준비 한창

글: 鄭武雄(64년 商大卒)부회장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대학교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0년전 申明植(64년 文理大卒) 초대 회장이 동창회를 결성한 이후부터이다.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이미 단과대학별로는 모임이 있었으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동문수가 점차 많아지고 본국 총동창회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체 동문모임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됐다.

처음에는 5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裴相環(61년 商大卒·KODECO GROUP 대표)동문이 96년부터 제4대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현재는 1백 13명으로 늘어났다.

금년엔 지난 7월 17일 골프시합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29일에는 두 번째 골프시합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 말에도 예년과 같이 전체 동문들의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처음 시도하는 행사로써 11월 3일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인의 밤」을 개최, 단과대학별 장기자랑과 동문부인들의 합창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전임회장 중에서 초대 申明植회장은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2대 高斗模(63년 商大卒)회장은 귀국하여 미원그룹 회장으로 있다. 제3대 朴用大(63년 商大卒)회장은 피혁업체인 대용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거쳐간 인사들로는 駐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한 韓宇錫(55년 文理大卒)동문과 金在春(56년 法大卒)동문이 있으며, 건설관 李和永(62년 法大卒), 무관 鄭相文(60년 商大卒), 상무관 朴弘植(62년 法大卒), 공사 申孝憲(64년 法大卒)동문이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다.

현재 각계에서 활동중인 동문들을 살펴보면, 금융계에 鄭大洙(63년 法大卒) 외환은행 현지법인 대표, 裴忠福(69년 商大卒)새한중금 대표, 金重石(69년 商大卒)산업은행 사무소장, 朴炳球(75년 法大卒)한국중금 대표, 李誠一(78년 經營大卒)보람은행 대표 등이 있으며, 진출업체 대표로는 安世煥(60년 工大卒·한일시멘트), 李大坤(62년 商大卒·현대공단), 安章勳(63년 工大卒·경동산업), 金聲培(68년 工大卒·제일제당 현지법

인), 崔景和(68년 農大卒·대화피혁), 金東震(70년 農大卒·POSCO), 鄭道雄(76년 農大卒·농진공)동문 등이 있다.

그 외에 成耆元(67년 師大卒)동문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 金景植(84년 農大卒)동문은 수라바야 한인교회 목사로 있다.

徐秉圭(63년 農大卒), 김용민(92년 農生大卒), 정우담(93년 農生大卒), 노경민(94년 農生大卒), 정수열(94년 社會大卒), 엄지미(95년 農生大卒)동문은 외무부 산하 해외협력단(KOICA)요원으로 파견나와 있다.

여성 회원으로는 洪美淑(71년 美大卒), 朴惠卿(73년 家政大卒), 安銀淑(80년 看護大卒)동문이 부군과 함께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지부는 단과대학별 모임도 활발한 편이다. 공대, 농대, 상대는 각각 두달에 한번 골프시합을 가진 후, 저녁에는 동문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만찬과 골프시합을 하고 회원동정을 알리는 등 친목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문리대, 법대는 인원이 많지 않아 부정기적으로 골프시합과 회식모임을 열고 있다.



96년 송년모임

제주 지부

신입생 환영회·대화의 광장 통해 친목 다져

글: 玄林鍾(60년 商大卒)부회장

제주지부는 93년 3월 3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탄생했다.

서울대학교가 종합캠퍼스로 통합되기 이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졸업한 특성 때문에 단과대학별 동창회는 있어도 총동창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이곳 제주에 92년, 초에 총동창회 회장단이 직접 내려와 각 대학출신 대표들과 만나 제주지부 창립을 독려한 결과로 3백50여명의 회원으로 제주지부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金炳贊(60년 醫大卒·한라의료원장)동문은 제주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했다.

첫째로 제주도 출신 서울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갖고 그들의 모교 입학 축하하는 동시에 서울대학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서울대인으로서 품위 유지와 학문 연마 및 인격 도야에 매진하도록 격려하고 벽시계를 합격 기념품으로 증정해왔다.

둘째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한 재학생들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선후배간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었



지난 8월 개최된 재학생과의 대화모임이다. 그 결과 선후배간에 가로놓인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토론 주제를 열거하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논제에서 선후배들이 나눈 의견은 어느 학술토론회보다도 진지했으며 결국은 실력배양보다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 4·3사건의 진상은 무엇이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논제에서는 50년전 제주사회를 속발로 만들고 수많은 인명과 재

산피해를 남긴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전 도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문민정부 아래서 학생운동의 이슈」라는 논제에서 재학생들은 이제야말로 학문 연마에 매진할 좋은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선배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신입생 환영회와 재학생과의 대화모임은 타 지역에서는 손쉬운 행사가 아니지만 제주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97년 1월 정기총회에서 金炳贊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金英昊(58년 藥大卒)동문에게 회장직을 넘겨 주었다.

제주교육대학장을 역임하고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신입 金英昊회장은 이날 취임인사에서 「전임 金炳贊회장이 이룩한 동창회의 기틀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방학으로 귀향한 재학생 1백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자리에는 최근 한라전문대학장에 취임한 金炳贊 전임 회장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李昇澤(44년 京城法專卒)동문, 제주대 총장을 역임한 金澄玉(55년 農大卒)동문, 제주대 총장에 취임한 趙文富(59년 法大卒)동문 등 50여명의 선배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재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해마다 50~60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이곳 제주이지만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원이 극히 적은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특히 제주대학에는 90여명의 동문이 집결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곳 출신이 아니며 그 외 공무원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깝다.

주방용품의 선두주자

냄비에서 도자기류까지 생활용품 골고루 생산

제품 차별화·패션개념 도입...주부 사랑 받아



⑨(주)세프라인

세프라인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중견기업이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金明錫(72년 文理大卒)동문은 『수출하기 위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던 그 시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20주년을 맞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도약」, 「성실」, 「인화」라는 사훈 아래 지난 77년 金동문이 설립, 성장을 거듭한 세프라인은 국무총리표창(80), 산업포장(81), 상공부장관 표창(90)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고 창사 이래 해외로만 진출하다 86년 국내 시장에도 뛰어 들어 꾸준한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밀바닥이 평평한 기존의 냄비 개념을 깨고 바닥에 요철을 주어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세겹으로 접합해 열효율을 높인 「슈퍼 3중바닥」으로 내수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 86년, 「슈퍼



金明錫대표

3중바닥」을 개발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감각으로도 간결함과 세련됨이 느껴질 정도이다.

90년의 「슈퍼 캡슐바닥」은 「슈퍼 3중바닥」보다 열효율과 열보존율이 한차원 높아져 「세프라인은 견고하고 열효율이 높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그 당시의 「에어로 압력솔」, 「그린 압력솔」, 「슈퍼골드 압력솔」, 「나나밥솔Ⅱ」, 「나나 롱핸들 밥솔」 등도 이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94년 솔과 냄비 바닥의 개념을 바꾼 초전도 열선바닥 공법이 개발됐다. 열선바닥 공법이란 황동이나 구리 등 금속을 특수 강철로 알루미늄 판재에 압착시켜 알루미늄의 강도와 열전도성, 열효율 등을 최대한 높이는 공법이다. 이 제품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그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에서 특허 출원중이며 이 공법으로 「나나 밥솔」과 「나나 냄비」 시리즈, 「코모」, 「코스모 냄비」 등을 출시했다.

이렇게 부단한 기술개발 끝에 작년에는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이 다섯겹으

로 부착되어 열효율을 극대화시킨 「5PLY CLAD METAL」이란 금속을 개발했다. 金동문은 「5PLY CLAD METAL」이란 것은 솔에 따로 바닥면을 부착하지 않고 다섯겹의 원판을 그대로 제작하여 열이 강해도 떨어질 염려가 없고 몸체 부분이 다섯겹이기 때문에 열효율과 열전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금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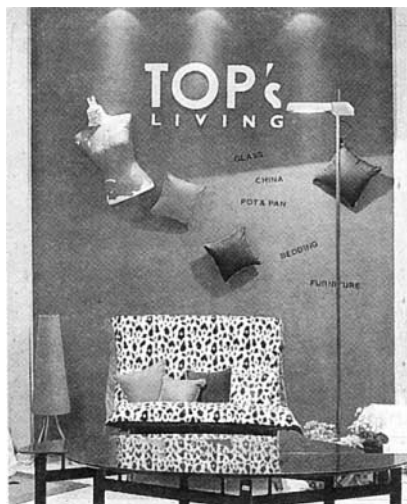
창사 이래 주방용품 수출을 주도해 온 세프라인은 87년 5백만불 수출 기념탑, 1년 후 다시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방용품 선두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국내의 여느 업체와 마찬가지로 국내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용 증대,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면서 세프라인은 제품 차별화 등에 의한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세프라인은 업계 최초로 「friction machine」을 도입, 전공정 자동화라인으로 품질 수준 향상은 물론 제품의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 고급화 등에 의한 제품의 차별화를 이뤘다.

세프라인은 주방에서 출발한 생활문화의 혁신을 거실, 침실에까지 확대했다. 지난 91년 고급 생활용품 전문점 「Top's Living」을 개점, 생활용품 유통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생활용품에 패션 개념을 도입해 밝고 경쾌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흰색이나 꽃무늬로 한정돼 있던 도자기류, 커피잔에 과감하게 파스텔 톤을 삽입하는 등 하나하나 작품을 고르듯 준비한 5천여 가지의 제품들과 넓고 편리하게 전시된 인테리어 공간은 주부들과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직접 환타지아 세트, 칼라머그, 접시 등의 시리즈 제품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칼라 글라스」를 출시한 세프라인은 또 한번의 히트를 쳤다. 「칼라 글라스」는 기존의 투명한 글라스의 개념을 탈피해 색깔이 입혀지고 불투명해진 스타일을 말한다. 또한 일반 음료수나 물컵의 수준에서 벗어나 와인잔, 주스잔, 물잔, 물병 등 양식 테이블에 쓰이는 다양한 스타일을 개발하여 고급, 섬세해지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특히 「서울 리빙 디자인페어」와 같은 국내의 유명 생활용품·인테리어 박람회에 자체 공간을 가지고 탑스 리빙만의 특색있는 제품과 인테리어 및 전시 감각을 보여 주었으며, 탑스 리빙 본사 이외에도 서울 및 지방의 유명 백화점 생활용품 매장에 탑스 리빙 매장을 개설하여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있다. <媛>



레스토랑 「라퓨타」 金石 사장



신세대 국악가수 金龍雨 동문

국내 최대 외식업체로 자리잡아

“외판 섬에 「테마파크」 세울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는 날아다니는 섬 「LAPUTA」가 나오고 그 섬의 주민들은 항상 공상에 잠겨 있다. 삼성역 진성빌딩 18층 레스토랑 「라퓨타」, 그리스 스타일에 동화를 집어 넣은 실내장식, 한강과 잠실야구장이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바로 이곳이 환상의 섬 「라퓨타」라는 느낌을 준다.

TGI프라이데스, LA팜스 등 외국자본과 기술로 국내에 수입된 업체와는 달리 순수 국내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져 국내 외식업체 메이커로는 단연 최대 규모로 기저면에서 천장까지 16m, 연면적 4백50평에 이르는 「라퓨타」의 사장은 金石(91년 師大卒)동문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경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카페경영은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들과의 경쟁에서는 이길 것 같았죠」

91년 홍대앞 피카소 거리에 3천만원을 들고 「피플」이란 카페를 열었다. 당시는 피카소 거리에 10여개 카페가 있었지만 지금은 2백여개가 넘는다. 정성을 다해 「피플」을 경영한 면도 있었지만 소위 홍대앞 오렌지문화가 운이 좋게 작용했다고 金동문은 성공비결을 말한다.

「솔모 없는 곳이라도 누가 어떤 생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아이디어죠」

金동문은 카페를 경영하면서 대학때 만화서를 「그림터」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중앙대 서양화과에서 공부한 미술감각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사업에도 뛰어 들어 金동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양재동의 「재즈 웨스트」, 홍대앞 「뚝」 등 60여개 카페의 실내장식을 했다.

「외판 섬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습



니다. 그곳은 멈춰진 시간을 갖는 공간으로 꿈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지의 섬에서 발견한 성, 그 성은 중세 유럽풍의 모습일 수도, 피터팬 동화의 나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게 만드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생각만 합니다.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죠. 처음 「피플」을 시작할 때나 18층에 「라퓨타」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테마파크」도 만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죠」

외국 대형업체의 체인점을 했으면 너무 편했을 거라는 金동문은 「라퓨타」에서 홀 안내, 서빙, 설거지까지 하며 다음에 도전할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삼성역 주위에 꽃집 아줌마, 스포츠센터 아저씨 등 자기 일을 하는 동문들이 많아요. 사무실에서 「앗! 동문이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가움을 느낍니다. 「라퓨타」에 들르시면 귀여운 후배를 불러 주세요」 (元)

토속민요 8곡 「지게소리」에 답아

“사라져가는 소리 보존에 힘쓸 터”

국악대중화에 남다른 정열을 가진 젊은 국악인 金龍雨(91년 音大卒)동문이 전국에서 채록한 옛 민요를 오늘의 감각에 맞게 계승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있는 토속민요는 땀의 의미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데, 노인들의 죽음과 함께 영영 사라질 우리 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 농촌활동에 참가해 촌로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金동문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잊혀져가는 토속민요를 찾아 전국을 돌아 다니고 농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났던 민요를 몸으로 느끼며 7년동안 3백여곡의 토속민요를 채집했다.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웠기에 지난해 8곡을 꺼내 독창적 창법과 편곡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게 「김용우의 지게소리」라는 첫 독집앨범을 발표했다.

충남 태안 고성규씨로부터 배운 「지게소리」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미했고, 제주도 「봉지가」에는 신디사이저와 단소 반주를 곁들였다. 충남 홍성의 「논매기노래」와 「군밤타령」은 아카펠라 합창으로 편곡했고, 진도의 「강강술래」는 메김소리를 코러스로 처리했다.

金동문은 중학교때 국악반에서 피리를 분 것이 국악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돼, 전국 국악경연대회 중등부에서 1등을 차지했고 국악고등학교와 모교 국악과로 이어지는 정통 코스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이수자로서 인간문화재 이양교선생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사사했으며 지금은 국악 대중화에 앞장선 연주그룹 「슬기둥」 단원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젊은 국악인들은 피아노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듣고 자라난 세대예요. 그 정서는 억지로 재워둔 채 전통의 보존만 강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갑갑했었죠」

金동문은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매주 금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국악의 향연」을 진행하며 「우리 가락 노래방」을 통해 우리 가락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듣고 부르던 민요가 이제는 찾아가야 만날 수 있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됐다. 이런 세대에 1집 음반은 누구나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는 대중국악의 선포였다. 金동문은 2집 음반을 준비중인데 컴퓨터로 음악을 편집하고 다양한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사용하며 진주난봉가를 댄스곡으로 만드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동정

수상

▲玄勝鍾(43년) 法大卒·건국대 이사장= 지난 10월 11일 동아일보사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제11회 인촌상(교육부문)을 받음.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 컴퓨터 회장·自然大同窓會長= 지난 10월 11일 동아일보사에서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제11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을 받음.

▲金雄世(57년) 商大卒·롯데월드 대표이사= 지난 95년 7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우주서커스 레이저 쇼」로 최근 세계위락산업협회 (THEA) 가 수여하는 '97 THEA상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東瓚(59년) 大學院卒·한국대학총장협회 사무총장= 한국의 국어대 및 부산의 국어대 총장을 역임해 한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8월 31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洪斗杓(61년) 文理大卒·한국방송공사 사장= 최근 방송70주년을 맞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 금장을 받음.

▲林炯斗(61년) 文理大卒·서울방송 제작본부장·本報論說委員= 최근 방송70주년을 맞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포장을 받음.

▲申勝教(65년) 工大卒·LG건설 사장= 지난 9월 8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6백년기념관에서 열린 '97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음.

▲裴洵勳(66년) 工大卒·대우전자 대표= 지난 9월 9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탱크주의를 기업문화로 정립해 확산시킨 공로로 문화체육부가 주관한 제4회 대한민국기업문화상 대상을 받음.

▲尹赫基(67년) 文理大卒·서울방송 사장= 최근 방송70주년을 맞아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 은장을 받음.

▲金漢泳(72년) 師大卒·서울방송 제작위원= 지난 9월 3일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한 제24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임꺽정」으로 TV최우수작품상을 받음.

▲梁玄承(7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지능형 이동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한국 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9월 수상자로 선정됨.

이동·선임

▲金泰斗(56년) 商大卒·前조흥

은행 전무)= 최근 (주)로 알엑소드창호 회장에 취임함.

▲吳在熙(57년) 文理大卒·前의무부차관= 최근 아시아·유럽 재단(ASEF) 이사에 선임됨.

▲趙文富(59년) 法大卒·제주대 행정대학원장= 최근 제주대학교 총장에 취임함.

▲梁世勳(61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9월 13일駐노르웨이 대사에 임명됨.

▲崔圭完(61년) 醫大卒·모교 교수= 최근 삼성서울병원 내에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설된 소화기센터 소장에 선임됨.

▲宋昌基(62년) 文理大卒·국민대학교 교수= 최근 창립된 한국시경학회 초대회장에 취임함.

▲盧二鉉(62년) 法大卒·기업은행 부행장보= 최근 기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함.

▲元喆喜(62년) 法大卒·농협중앙회 회장= 지난 9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총회에서 한국 협동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에 선출됨.

▲金時淡(62년) 商大卒·한국금융연수원장= 지난 9월 5일 사원총회에서 한국금융연수원장에 연임됨.

▲李廷玟(63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지난 9월 11일 문체부로 부터 국어심의회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에 위촉됨.

▲蔡熙慶(63년) 法大卒·삼일정공 회장= 최근 대전 소재 우송산업대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에 임용됨.

▲朴明植(63년) 商大卒·한국컴퓨터 대표= 최근 무선데이터통신 한세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河珍圭(64년) 工大卒·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장에 선임됨.

▲崔永光(64년) 法大卒·법무연수원장= 최근 한국형사정책연

구원장에 취임함.
▲沈相明(64년) 法大卒·광주고검장=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함.

▲高寅錫(64년) 商大卒·삼양사 전무= 최근 삼양사 대표이사로 승진함.

▲俞榮濬(65년) 農大卒·농어촌진흥공사 총남지사장= 최근 농어촌진흥공사 기획본부장에 선임됨.

▲李淳赫(65년) 農大卒·충북대학교 교수= 최근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에 취임함.

▲沈景輔(65년) 文理大卒·駐토론토 총영사= 지난 9월 10일 인천광역시 국제대사에 임명됨.

▲李源浩(65년) 法大卒·중소기업청 차장=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 부회장에 선임됨.

▲金吉洙(65년) 藥大卒·이화여대 교수= 지난 8월 1일자 로 이화여대 약대 학장에 취임함.

▲柳武成(66년) 工大卒·삼성항공 대표이사= 최근 공군회관에서 대한항공협회 제22대 회장에 취임함.

▲柳寧夏(66년) 法大卒·기업은행 북부지역본부장= 최근 기업은행 부행장보로 승진함.

▲李榮現(67년) 文理大卒·외무부 기획관리심의관= 지난 9월 13일駐오만 대사에 임명됨.

▲郭明圭(68년) 文理大卒·한국베트로텍스 부사장= 최근 한국베트로텍스 사장으로 승진함.

▲張東哲(68년) 文理大卒·외무부 중남미국장= 지난 9월 10일駐마이애미 총영사에 임명됨.

▲李相憲(69년) 工大卒·前한국디지털 시스템 사업담당 부사장= 최근 중대형컴퓨터 공급업체인 한국NCR지사장에 선임됨.

▲李一恒(70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기술연구부장= 최근 세계적 학술단체인 영국전기공학자기구(IEE)로부

터 펠로로 추대됨.
▲金時煥(70년) 工大卒·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기구인

국제 원자력 해수담수화 자문위원회(INDAG) 위원장에 선임됨.

▲金富寬(70년) 文理大卒·駐프랑스 공사= 지난 9월 13일駐튀니지 대사에 임명됨.

▲朴三玉(70년) 文理大卒·前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 최근 월드컵서치 회장에 취임함.

▲李洪允(70년) 文理大卒·보건복지부 감사관=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1급)에 승진 임명됨.

▲安鍾常(71년) 工大卒·前삼성중공업 전무= 최근 데이콤의 해외사업 전담 자회사인 데이콤 인터내셔널 사장에 선임됨.

▲李鍾尹(72년) 文理大卒·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선임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취재주간·本報論說委員= 최근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 선임됨.

▲李潤馥(73년) 行大院卒·외무부 외교정책심의관= 지난 9월 13일駐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에 임명됨.

▲金鎮植(71년) 文理大入·인천교대 교수= 최근 인천교육대학교 도서관장에 취임함.

▲崔泰東(75년) 農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장= 최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선임됨.

▲趙雄濟(79년) 農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실장= 최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선임됨.

▲韓榮均(81년) 人文大卒·울산대 교수= 지난 9월 11일 문체부로 부터 국어심의회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에 위촉됨.

▲權赫喆(82년) 工大卒·부산대학교 교수= 지난 9월 11일 문체부로 부터 국어심의회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에 위촉됨.

▲梁秉國(87년) 醫大卒·경기 연

(11면에 계속)

제3회 「독서문화상」 수상

曹秉昊 동문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제정한 제3회 「독서문화상」 대령상 수상자로 회사내에서 「월 책1권 읽기운동」을 전개해 온 曹秉昊(69년 工大卒·동양기전 회장)동문(사진)이 선정됐다.

독서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曹동문은 지난 91년 국내 최초로 사내에 독서문화대학을 설립하여 기업의 독서운동을 주도해 왔다. 매월 회사가 추천하는 도서 중 각 팀별로 독서 후, 독후감을 작성하고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면접과 승진 심사에도 독후감 평가와 독서토론을 반영하는 등 「독서경영」이란 독특한 기업문화를 정착, 사원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元)

〈10면에 이어〉

천군 보건의료원장)=최근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에 선임됨.

▲姜淑子(32기 ACAD·부산 해운대 케이블 TV 상무)=최근 시도 교육위원회 여성으로는 최초로 부산시 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출됨.

행사·출간

▲權吉相(48년 音大卒·재미 작곡가)=지난 8월 27일 서울 YMCA에서 고희기념 작곡집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相廈(49년 文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9월 12일 대한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河炳基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로 「해외투자기업의 영업활동 분석과 대응방향」세미나를 개최함.

▲白樂院(49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최근 대지면적 3천4백여평에 지하6층 지상10층 6백병상 규모로 오는 99년 완공될 일산백병원 기공식을 가짐.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원장)=지난 9월 12일 국제연합 비정부 기구(UN NGO) 제50차 연대회의 폐막식에서 「21세기 NGO의 역할과 과업」이라는 주제로 연설함.

▲曹亨均(50년 藥大卒·씨알마당 편집위원)=최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지적하고 한-일간의 진정한 친선 증진을 호소한 「가깝고도 가까운 사람의 말」(新幹社刊)을 펴냄.

▲金昌烈(48년 美大入·화가)=지난 9월 2일부터 14일까지 「갤러리 현대」와 「박영덕 화랑」에서 25년 동안 작업해 온 물방울 소재 작품들로 개인전을 가짐.

▲裴載湜(53년 法大卒·한일포럼 회장)=지난 9월 5~7일 신라·워커히 호텔에서 한국측 22명, 일본측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정세와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제5차 포럼을 개최함.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복지재단이사장)=지난 9월 7일 서초구민회관에서 張庭延주한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근로자를 위한 「중추절 큰잔치」를 개최함.

▲朴龍鎭(55년 工大卒·홍익대 교수)=지난 9월 6일 서교 호텔에서 정년퇴임 기념식 및 저서 「철강의 역사와 인간」 출판기념회를 가짐.

▲申東植(55년 工大卒·해사기술 회장)=최근 조선공업전문 주간지 「조선저널」을 창간함.

▲金始中(55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지난 9월 3일 고별강연을 끝으로 40년의 교수생활을 마감함.

▲安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

월 26일 하얏트호텔 2층 로터스룸에서 李桓均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 「건설교통 현안과제와 주요시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토론회를 가짐.

▲柳光烈(56년 師大卒·한국자유시협회 명예회장)=지난 9월 1일 일본에서 일역시집 「祝福は限りなく」(축복은 한없이)(光言社刊)를 출간함.

▲南時旭(58년 文理大卒·문화일보 사장)=최근 언론인 이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구조적 문제를 통찰력있게 그려낸 「체험적 기자론」(나남刊)을 펴냄.

▲金洪雲(58년 師大卒·한양대 교수)=최근 한국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쓴 「관광과 나라 얼굴」(형설출판사刊)을 펴냄.

▲李漢雄(58년 商大卒·아시아신탁연합회 부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신탁연합회(ACCU)총회에 참석함.

▲金鎮福(58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9월 14일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1회 포르투갈-아시아 외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함.

▲李枝馥(58년 醫大卒·피부비뇨기과의원장)=최근 의원을 중구 충무로 5가 20-16로 이전함.(전화: 275-1813)

▲李潤植(59년 工大卒·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지난 9월 10일 시설안전기술공단 대강당에서 시설

물 안전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덴마크 국립건설연구소 에릭 솔츠 박사를 초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철근부식방지 및 모니터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朴權浩(59년 文理大卒·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지난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해로연구회 주최로 재판관 취임 기념 강연회 및

축하연을 가짐.

▲朴承載(59년 師大卒·한국교과교육학회 회장)=지난 9월 6일 대전 한남대 국제회의실에서 「교과교원 양성과 사범계대학평가의 발전적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韓完相(60년 文理大卒·한국사회문화연구원 회장)=지난 9월 5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산가족찾기 사업에 응용하기 위한 「AI Data-Mining/Agent Technology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함.

▲朴嬭實(60년 醫大卒·경기여고 동창회장)=지난 9월 23~29일 조선일보 화랑에서 경기여고 동문 미술초대전을 갖고 동양화·서양화·조각·만화·섬유작품 등을 전시함.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한-독 기술혁신 위크숍」에 참가, 「국가정보화 인프라」란 제목으로 강연함.

▲孫鳳鎬(61년 文理大卒·문정치추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지난 9월 9일 서울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활동 중간평가와 올바른 정치개혁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朴仁秀(61년 法大卒·수원지검장)=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301호 전화: (0331)217-8811)

▲金奭圭(62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장)=지난 9월 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나빌 엘라라비 駐유엔 이집트대사를 초청, 「유엔개혁」「군축문제」「중동평화협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韓昇洲(62년 文理大卒·前외무부 장관)=유엔체제내 훈련프로그램을 전담케 될 유엔직원대상(UN Staff College)자문이 사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14, 1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창립이사회에 참석함.

▲柳錫烈(62년 師大卒·외교안보연구원 교수)=지난 9월 4일 연구원에서 저서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의 출판기념회와 논문집 봉정식을 가짐.

▲羅鍾一(63년 文理大卒·경희대 인류사회연구원장)=지난 9월 5일 광릉캠퍼스 대회의실에

서 「21세기의 세계시민」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趙璇衡(63년 師大卒·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회장)=최근 청주교대에서 「97년 하계 초등과학교육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함.

▲孫善奎(64년 法大卒·한국감정원장)=지난 9월 8일부터 3일간 한국감정원에서 내무부가 위탁한 제1기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담당 공무원 2백61명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부동산신탁 등의 교육을 실시함.

▲司容晄(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앤서니 레이크 前 美대통령안보보좌관을 초청, 「한·미 관계: 변화속에 안정」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徐京善(64년 音大卒·前한국여성작곡가회 회장·한양대 음악연구소장)=지난 9월 8일에서 13일까지 이

태리, 로마 등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심포지엄 및 세계여성음악제에 참석, 한국 여성작곡가들에 관해 보고함.

▲金春吉(64년 醫大卒·중앙대 교수)=지난 9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10차 미국이비인후과학회에 참석함.

▲邊炯(65년 文理大卒·한국투자신탁사장)=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

식을 열고 21세기 세계적인 종합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선포식을 가짐.

▲車東世(65년 商大卒·한국개발연구원장)=지난 9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林敬鎬(65년 行大院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지난 9월 9일 부산 교통공단에서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방향」,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여건마련」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羅亨洙(66년 文理大卒·KBS비서실 사장보좌역)=최근 동아

(12면에 계속)

한국문화경제사학회 발족

초대회장에 郭秀一동문



경영대학장)동문(사진)을 초대회장에 선출했다.

학회에는 李賢率학술원 회장, 崔滿麟국립현대미술관장, 韓明熙국립국악원장, 尹炳哲하나은행 회장 등 1백30여명의 학계-문화계-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신임 郭회장은 『경제발전해봐야 삶의 질 면에서 나아진 게 별반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라며 『삶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도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元)

문화예술과 경제의 상호관련성 연구 등을 통해 양자가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국문화경제사학회」(가칭)가 지난 9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족, 郭秀一(63년 商大卒·모교

(11면에 이어)

방송전문대 겸임교수에 임용돼
을 2학기부터 방송학개론 등을
강의하게 됨.

▲李靑俊(66년 文理大卒·작가)
= 판소리 다섯마당을 동
화로 묶어낸 것 중 네번째
인 「춘향이를 누가 말려」
(열림원刊)를 펴냄.

▲孫 郁(67년 工大卒·한국전
지연구조합 이사장)= 지난 9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차세대 소형 전지산업 심포지
엄」을 개최함.

▲張昌浩(67년 法大卒·의정부
지검 부장검사)= 지난 9월 11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전화
0351-879-0700)

▲曹相鎭(67년 行大院卒·창조
장학회 이사장)= 지난 9월
6일 강북대성학원 소강당에서 관
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97년도 장학금 수
여식을 가짐.

▲鄭海濤(68년 法大卒·중소기
업청장)= 지난 9월 18일, 1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에 한

국수석대표로 참석함.

▲李建榮(68년 工大卒·교통개
발연구원장)= 지난 9월
5일 서울 라
마다 르네상
스호텔에서
「교통시설의

투자와 운영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원 10주년기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李錫采(68년 商大卒·前대통
령경제수석)= 최근 외국어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좌교수로 임
용돼 「무한경쟁시대의 한국경
제」를 주제로 강의함.

▲洪 哲(69년 商大卒·국토개
발연구원장)= 지난 9월 9일 경
남 창원시 경남교원연합회 강
당에서 경남개발연구원과 공동
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
최함.

▲金英堉(70년 商大卒·서울지
법 부장판
사)= 최근 변
호사 사무실
을 개소함.
(주소: 서초구
서초동 1716
-6 기영빌딩 503호, 전화: 596
-7799)

▲金聖德(71년 醫大卒·모교 교
수)= 지난 9월 21일 일본 요코
하마에서 열린 제3차 소아마취

학회에 참석함.

▲左承喜(71년 商大卒·한국경
제연구원 원
장)= 지난 9월
9일 서울 프
라자호텔
에서 각계 전
문가를 초청,
「새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成樂承(71년 行大院卒·前한
국방송공사
사장·동국대
교수)= 지난
8월 25일 성
균관대학교
후기졸업식

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
제제도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음.

▲金賢執(72년 醫大卒·모교 교
수)= 지난 9월 鄭天基동문과
함께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차 한일 척추수술학회에 참석
하고 21일 귀국함.

▲崔相鎭(73년 行大院卒·세종
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17년
간 외교관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나라 저런
나라」(인능원刊)를 펴냄.

▲趙連浩(74년 法大卒·수원지
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9월
22일 수원시 원천동 법조빌딩
201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
함.(전화 0331-217-4500)

▲崔弘林(75년 農大卒·모교 교
수)= 최근 축
산폐수를 획
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여과식 돈슬
러리(돼지분
뇨)처리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인정받음.

▲金炯鎭(77년 法大卒·수원지
방법원 부장판사)= 지난 9월
22일 수원시 원천동 법조빌딩
201호에 趙連浩동문과 함께 변
호사 사무실을 개소함.

▲朴正植(77년 醫大卒·서울위
생병원장)= 지난 9월 10일 서울
신내동 사회복지회관 노인정
에서 60여명의 몸이 불편한 노인
들을 무료진료함.

▲朴世勳(78년 醫大卒·피부과
의원장)= 지
난 9월 1일
반포프라자
309호로 이
전, 개원함.

▲韓文熙(78년 醫大卒·모교 교
수)=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
에서 개최된 미국 중재적 신경
방사선학회에 참석함.

▲洪承漢(79년 師大卒·한국해
양수산개발원장)= 지난 9월 5
일 미국 로드아일랜드대에서
카로더스총장과 「한·미 해양정
책 공동연구센터」설립과 공동
연구·학술교류를 위한 양해각

서 조인식을 가짐.

▲尹承容(80년 人文大卒·방송
문화진흥회
기획사업부
장)= 최근 종
교현상을 사
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한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한울아카데미
刊)를 펴냄.

▲吳在寅(80년 經營大卒·단국
대교수·한국
경영정보학
회 부회장)=
최근 MIS분
야 전공학생
및 정보산업

계 실무자를 위한 「경영과 정
보시스템」(박영사刊)을 펴냄.

▲姜信子(80년 美大卒·조각가)
= 지난 9월
10일부터 10
월 7일까지
「갤러리 드
서울」에서 등
양의 풍경을

브론즈 유리의 부조로 표현한
작품들로 「窓」이란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함.

▲李丙益(81년 醫大卒·인하대
교수)= 최근 덴마크에서 열린
제15차 국제 산부인과학회에
참석함.

▲金德河(83년 醫大卒·한림대
교수)= 최근 「신생아학」 연구
를 위해 미국 덴버콜로라도대
학에 1년간 연수차 출국함.

▲李知禧(84년 美大卒·화가)=
지난 9월 3일
에서 12일까
지 모인화랑
에서 「관계의
장」이라는 주
제로 네번째

개인전을 가짐.

▲蔡 潤(85년 社會大卒·변리
사)= 최근 安
昊燦(84년 工
大卒)동문과
함께 국제특
허법률사무
소를 개소함.
(주소: 강남구 역삼동 642-6 성
지하이츠III 807호 전화: 569-
7766)

▲全泰國(86년 醫大卒·성균관
대교수)= 최근 미국 포틀랜드
세인트빈센트병원에서 1년간
성인 및 소아심장 분야 연수차
출국함.

▲李炯龍(87년 人文大卒·장애
인먼저실천
운동협의회
책임간사)=
최근 「밀레니
엄 전환기의
유머니즘 운
동론」이란 부제를 단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도서출판 태양
刊)를 펴냄.

▲裴宰男(89년 醫大卒·인하대

병원 정신과 전문의)= 최근 이
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8
차 국제정신과학회에 참가, 논
문을 발표함.

(정리=盧志元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
다.

* 서왕진 군(89년 社會大
卒)·곽지은 양= 10월 18일
11시.

* 안익환 군(94년 大學院
入)·백지선 양= 10월 18일
12시30분.

* 노금환 군(91년 師大卒)·
김지영 양= 10월 18일 14시.

* 임명규 군(97년 人文大
卒)·손정옥 양= 10월 18일
15시30분.

* 김진울 군(92년 工大卒)·
김운선 양= 10월 19일 11시.

* 안상현 군(88년 工大卒)·
류미영 양= 10월 19일 12시
30분.

* 이소영 군(95년 人文大
卒)·이예한 양= 10월 25일
12시30분.

* 김영민 군(95년 工大卒)·
남인우 양= 10월 25일 14시.

* 표태수 군(92년 自然大
卒)·손화희 양= 10월 25일
15시30분.

* 노정화 군(91년 人文大
卒)·임유경 양= 10월 26일
15시30분.

* 조종수 군(93년 工大卒)·
우미향 양= 11월 1일 11시.

* 임창배 군(94년 人文大
卒)·김은영 양= 11월 1일 14
시.

* 조남경 군(91년 工大卒)·
양 숙 양= 11월 1일 15시30
분.

* 도기환 군(91년 社會大
卒)·인나영 양= 11월 2일 12
시30분.

* 황범태 군(88년 獸醫大
卒)·채윤아 양= 11월 8일 11
시.

* 최은규 군(95년 自然大
卒)·송지영 양= 11월 8일 12
시30분.

* 주재영 군(95년 工大卒)·
이자현 양= 11월 8일 15시30
분.

* 배현배 군(94년 師大卒)·
김명희 양(93년 師大卒)= 11
월 9일 11시.

* 최봉규 군(95년 藥大卒)·
서영주 양= 11월 9일 12시30
분.

* 송진호 군(93년 農生大
卒)·김현성 양= 11월 9일 15
시30분.

동양화과 출신 그룹 「LUX」 「공간, 여백」 주제 작품 전시



좌로부터 李榮基, 金聖雨, 李鍾旻, 李周原, 車東河동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李榮基(90년卒), 車東河(90년
卒), 金聖雨(91년卒), 李周原
(91년卒), 李鍾旻(92년卒)동
문이 그룹 「LUX」를 결성하
고 「공간, 여백」이라는 주제
로 서경갤러리에서 9월 10일
에서 23일까지 두 번째 전시
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양의
고유한 미감인 여백과 공간
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작가

가 임의로 선택한 매체에 의
해 연출되는 다양성 속의 통
일을 추구하고 표현했다.

「LUX」는 「빛」의 의미로 서
로의 빛이 모여 더 먼 곳을
비추고, 더 멀리 나아갈 방
향을 모색하자는 의도로 결성
됐으며 매년 주제를 설정하
여 새로운 작업방향을 모색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
획」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元)



서울시 安熙玉 여성정책보좌관

여성의 전문영역 개척에 한 길만

「기초 튼튼·계획 치밀·추진 과감·마무리 꼼꼼」이 신조

지난 8월 5일 安熙玉(65년 法大卒)동문이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보좌관으로 승진·임명됐다. 安동문은 95년 올해의 공무원상, 86년 대통령 표창, 78년 근정포장을 받는 등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安동문을 만나 그동안의 공직생활과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정책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공무원이 된 계기는.

『경성법전을 나오신 아버지께서는 판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고시선발 인원은 지금에 비해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었고 우선 저 자신이 자신감이 부족했었습니다. 서울시청을 지나던 길에 공무원 응시원서가 배부되는 것을 보고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될까 궁금하여 응시했더니 합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9급(당시 5급乙)공무원 중 저 혼자만 여자가었으니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국한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초기엔 한참동안 모교출신이라는 사실을 안팎했다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웠지요. 신상기록에 대학나왔다는 사실을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도 가게 되면 1, 2등을 놓치지 않고, 70년부터 근무한 시청

부녀과에 재직하시던李玉順지도계장이 모교 법대10회 졸업생이라는 것을 알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말단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고급공무원으로 출발한 분들이 갖지 못한 큰 자산이었습니다. 부하직원의 애로사항,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선하게 꿰뚫어볼 수 있으니 까요』

—여성 분야에 소신을 갖고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부녀과에 발령받은 지 며칠 안돼 인권주간인 12월이었습니다. 버스승차료 받는 여차장들이 종점에 돌아오면 받는 몸수색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차 버스종점의 기숙사마다 찾아다니며 여차장들의 사정을 듣고 다닐 때 「아, 이게 바로 내 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버스를 탈 때마다 여차장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승차료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은.

『치마바람이 문제가 됐던 70년 당시 「학교 어머니 교실」을 만들어 치마바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킨 일, 83년 해외근로자 아내들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설치해 남편들에게 감사를 받았던 일, 88년 한창 유행이었던 디스코테크를



청소년회관에 설치해 청소년들이 맘놓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한 일, 89년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유지를 골목할아버지라 하여 마을 지도를 부탁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교통할아버지라 하여 일거리를 주고 퇴직교사들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하여 서당의 훈장으로 청했던 일, 정무2장관실 조정관 재임시 「평등의 소리」를 개설하여 거기에 담긴 목소리들을 여성정책의 자료로 삼았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생활은.

『61년 입학한 19회 동기 3백명 중 법학과 3명, 행정학과 3명 이렇게 모두 6명이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끼리 단조롭고 암전하게 보낸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해엔 정원이 1백 60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런지 여학생이 없었고 그 다음해에 黃山城변호사가 들어왔죠. 그리고 바로 위 선배로는 姜基遠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대 19회 모임은.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북 모임은 매달 7일 「마당 세실」에서 열립니다. 정기총회는 봄과 연말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남편(朴東植)은 행대원을 졸업한 동문으로서 조달청 총남지청장으로 있다 퇴직해 지금은 인세협동조합의 임원입니다. 결혼을 느지막하게 서른 한 살에 해서 2남1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며 큰딸은 대학졸업 후 회사원으로 있고 작은 아들은 군복무 중입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자식들 결혼에 힘써야겠어요』

—직장여성들에게 한말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과정에서 따로 로비할 필요없이 바로윗상관에게 잘하고 인정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서 오는 기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본 일의 절차는 「기초 튼튼, 계획 치밀, 추진 과감, 마무리 꼼꼼」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자아의 실현과정,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남성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뛰어아 인정받고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媛)

뉴잉글랜드 지부

초대 회장에 朴京民동문



뉴잉글랜드지부동창회는 지난 9월 21일 Newton Marriott Hotel에서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李在德사무총장, 崔浩권집인을 비롯해 뉴잉글랜드지역

동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金在淳회장의 축사와 모교 鮮于仲

皓총장의 격려사가 대독되었으며, 임원선출을 통해 초대회장에 朴京民(59년 醫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총무담당에 權彝德(72년 工大卒), 재무담당에 金聖烈(68년 醫大卒), 기록담당에 金文昭(65년 獸醫大卒), 출판 및 홍보담당에 李義寅(72년 工大卒), 섭외담당에 崔英勳(72년 工大卒), 골프담당에 溫己哲(71년 醫大卒), 학생담당에 남운석(96년 音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포사회의 현안문제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축사, 보스톤 李樸承영사의 격려사로 시작된 「동문의 밤」행사는 음대 출신 동문들이 축하음악으로 흥을 돋구었다.

로 운영하기 위해 「Orientation Network」시스템을 구성해 미주로 유학 또는 이민오는 동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미주지역 동문들을 지적자원으로 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연결해주는 「Free Consulting」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吳회장은 『재미동창회보 제작비가 월 9천달러 정도가 소요되는데 광고비와 연회비로도 충당을 못해 5천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기금조성에 힘을 써 재정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미동창회는 최근 美연방법원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동창회 사업 수익과 회원들의 헌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雙)

뉴욕 지부

제19대 회장에 尹烜玉동문



제19대 임원진(앞줄 좌로부터 세번째 尹회장)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崔洙容)는 지난 9월 22일 뉴욕 「엠패이어 코리아」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9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尹烜玉(54년 藥大卒)동문을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宋寬鎬(64년 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에 辛正澤(56년 藥大卒), 韓京秀(61년 文理大卒), 鄭仁湜(64년 商大卒), 李秀鎬(71년 保大院卒), 吳永植(76

년 法大卒)동문, 사무총장에 崔亨茂(76년 法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중행사 외에 앞으로 동문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원로동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10월 18일 뉴욕CC에서 친선골프대회, 12월 13일 힐튼호텔에서 송년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응용물리학과

새 회원명부 발간 배포

응용물리학과동창회(회장 吳啓煥)는 지난 8월 25일 강남 한정식당 「한미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吳회장과 모교 崔柄斗, 宋熙星, 張會翼교수, 南天祐명예교수를 비롯,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각자 개인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친목을 다

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단결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同科창립 초창기에 재직했던 孟琰在교수의 정년퇴임 기념행사가 함께 열렸으며, 새로 발간된 회원명부도 배포됐다. (연락처 0336-30-3416 卞得壽총무)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
조직강화·재정확충 방안 밝혀

지난 9월초 재미동창회 吳仁錫회장(사진)이 평통자문회의 참석차 귀국해 본회 임원진 및 본보 논설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미동창회 역점사업내용을 논의했다.

吳회장은 李典九 前뉴욕지부회장과 더불어 지난 9월 5일 오전 뉴코리아CC에서 崔主鎬명

예회장,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瀨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경기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본회 閔丙陵부회장, 본보 孫一椽논설위원, 모교 崔松和부총장, 張達重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만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재미동창회 운영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吳회장은 지난 9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본보 편집회의에 李鍾國수석부회장과 함께 참석, 미주지역내 동문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지부를 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吳회장은 『동창회 조직을 보다 더 실용적으

서울法大 기독교동문회 정기총회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하늘은 높고 산은 푸르되, 사람사는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에 2년전의 부르심을 되새겨 보고 우리를 향한 主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2회 정기총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문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후배들의 학문과 신앙의 터전인 冠岳에 함께 모여 구원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1997. 10.

서울법대 기독교동문회 회장 이영수

일 시: 1997. 10. 27(월) 오후 7시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연락처: 송기영 변호사(27회, 595-0550)



문리대 5회

입학 50주년 기념 수상록 준비

문리대5동기회인 東崇會(회장 崔起東)는 지난 9월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金敏洙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宋基完부회장의 경과보고로 이어졌다.

崔회장은 『재학시절 총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고 6·25전쟁 등의 극심한 혼란 가운데도 자기완성의 노력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결실을 이룬 동기들이 자랑스럽다』며 『마음을 비우고 청산과 더불어 사는 넓은 마음과 맑은 정신을 가진 동기들의 건강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天柱(47년 文理大卒·前모교총장)동문은 축사를 통해 『문리대5회 동기가 오랜 세월동안 우정을 간직하고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제1회 졸업생으로서 부럽고 자랑스럽다』며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흔

이 모두 넘은 나이지만 모교 발전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리대5회 동기들은 47년 5월 1일 3백24명이 입학해 현재 생존해 있는 1백여명의 동기

중 해외에 20여명, 거주불명 20여명을 제외하고 60여명의 동기들이 자주 모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요즘 입학 50주년 기념 수상록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대학원

5개 클럽 담당부회장 선임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孔大植)는 지난 9월 25일 모교 교수

회관에서 모교 郭秀一학장, 禹德純동문을 비롯한 40여명의 임원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총회 및 「교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그 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앞으로 동창회 활성화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모교에 도움을 주고, 또한 후배들은 우수한 인재가 되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드는데 서로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同窓會는 5개 클럽 연간 행사계획안을 발표하고 李徽永(학술클럽), 柳民熙(골프클럽), 俞敏喆(여행클럽), 金秉權(등산클럽), 韓基龍(테니스클럽)동문을 각각 클럽 담당부회장으로 선임, 부회장 책임하에 클럽을 운영하고 30명 이상의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클럽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97년도 지회장회의」 열어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9월 24일 신라호텔 라일락룸에서 97년도 지회장회의를 개최했다.

同窓會 고문, 상임이사, 각 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동창회와 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로 이어졌다.

李회장은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사업이 국내동문 뿐만 아니라 해외동문의 열의와 정성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고 말하고 『지회장들이 힘을 모아 동창회 위상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지회장들도 『지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동창회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 사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회장 회의에 이어 열린 상임이사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사업에 대한 회무토의가 진행됐다.

의대 신경외과

창설 40주년 기념 축하연 가져



의대 신경외과동창회(회장 趙榮熙)는 지난 8월 30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모교 李鍾炯의대학장, 李迎雨병원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동문과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실창설 4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축하연을 개최했다.

지난 40년간 한국 의학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모교 신경외과 교실을 재평가하고 새로

운 방향을 모색키 위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의 교수들을 초청,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同窓會는 지난 9월 21일 연건캠퍼스에서 동문 테니스대회와 바둑·장기대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졌으며 신경외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복사기 1세트를 기증했다.

전기공학과

「홈커밍」 행사서 유공동문 표창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徐廷旭)는 지난 9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홈커밍 데이」행사를 가졌다.

동문가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석·박사학위를 받은 韓學根동문 등 19명에게 학위 취득 축하패 전달이 있었으며 文熙晟, 韓松暉, 權旭鉉, 韓民九, 崔長東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崔國鳳고문과 이날 행사를 지원한 24회, 37회 동기회

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약대 60회

부부동반 등산대회

약대60동기회(회장 裴榮一)는 지난 6월 29일 경기도 포천군 백운산에서 부부동반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등산이 끝난 후 열린 행운권 추첨에서 다복상은 李奎鎬동문 부부, 애석상은 閔丙武동문 부부, 아차상은 吳成煥동문 부부에게 돌아갔다. (元)

만평

李元馥



必勝?

모교소식

논술고사 교과서內 출제키로 종합 사고·논리 측정에 중점

모교는 최근 논술고사연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의 제시문은 중·고교 국어·문학교과서에 실린 지문이나 교과서에 참고자료로 명시된 작품·저술에서 고르되 종합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제를 제시한다는 출제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과외수강을 통해 정형화된 답안을 내는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 내용을 평가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교는 그동안 논술고사 출제범위를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논제」로 정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제시문으로 출제했다.

모교는 그동안 논술고사 출제범위를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논제」로 정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제시문으로 출제했다.

인문대학장에 劉平根교수 음악대학장에 李成千교수



劉平根 학장

신임 劉학장은 65년 모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그르노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1년 모교에 부임, 불어불문학과장을 역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65년 모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한 李학장은 국악과장, 음대 학생담당 부학장, 음대 부설 동양음악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인문대학 교무담당 부학장에 국어국문학과 權斗煥(70년 文理大卒)교수, 학생담당 부학장에 서양사학과 崔甲壽(76년 人文大卒)교수를 선임했으며 음악대학 부학장에 기악과 徐桂淑(60년 音大卒)교수를 선임했다.



李成千 학장

지난 9월 1일자로 인문대학 학장에 불어불문학과 劉平根교수, 음악대학 학장에 국악과 李成千교수가 각각 취임했다.

공대 전기공학부 韓民九교수 제1회 「최우수 연구상」 받아

공과대학 전기공학부(학부장 權旭鉉)는 지난 9월 2일 韓民九교수(사진)에게 제1회 「최우수 연구상」을 수여했다.

교수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이 상은 동료교수들이 심사위원을 맡은 첫 자체평가제도이다.

韓교수는 지난 3년간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지 등 세계 유수의 전기·전자공학 분야 저



널에 27편의 논문을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텔레콤

기금교수 운영비 20억원 출연

SK텔레콤 孫吉丞(63년 商大卒·선경그룹 경영기획실장)부회장은 지난 9월 3일 모교 鮮于仲皓총장과 「기금교수」출연 협정식을 가졌다.

「기금교수제」는 기업체 또는 개인의 출연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국내외 석학을 교수로 임용,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모교에 기금교수 4구좌, 석좌교수 1구좌 등 총 5구좌분 기금교수 운영비 20억원을 출연했다.

「마이크로 로봇」 제 15회 경연대회

공과대학 전기공학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가 주관한 「제15회 전국 마이크로 로봇 경연대회」가 지난 9월 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전국 대학에서 참가 신청을 낸 1백14개팀 가운데 70개팀이

예선전을 펼쳐 로봇이 얼마나 빨리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겨루었다.

본선에 오른 10개팀중 하인용(고려대)군이 출품한 「두-둥!」이 최우수상, 박성식(호서대)군이 출품한 「비츠로 1+」가 우수상, 노창현(고려대)군이 출품한 「과광」이 장려상, 이후성(광운대)군이 출품한 「k-16」이 격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생활과학대학

전화상담실 운영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소비자학과는 최근 생활상담실을 개설해 가족간의 인간 관계, 자녀 양육 및 교육, 소비자 및 가계재정, 주거 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요일에는 가족문제, 화·목요일에는 아동문제, 금요일에는 소비자 관련 문제 등을 상담하고 있으므로 자녀 교육, 주택 관리, 노후대책, 배우자 선택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 (전화:880-6827)

「종합체육대회」

10월 20일부터

「97년 서울대학교 종합체육대회」가 오는 10월 20일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열린다.

남자부 종목은 육상,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마라톤, 줄다리기이고 여자부 종목은 소프트볼, 육상, 탁구, 마라톤, 줄다리기이다. 또한 교직원들은 제25회 총장배 마라톤 대회를 겸해 마라톤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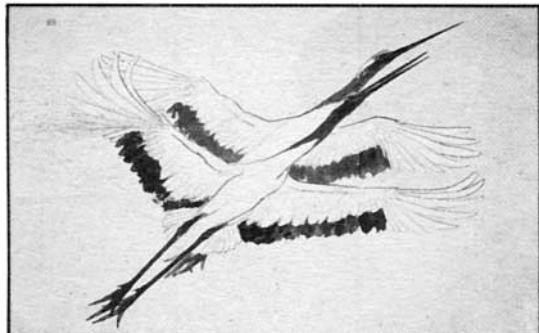
종합 우승은 트로피와 1백50만원, 준우승은 트로피와 1백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雙)

선배님 아세요?

— 大學新聞 「대학살롱」중에서—

대자보를 사랑하는 사람들

◇개강후 모처럼 도서관에 들렀다가 깨끗해진 매점을 보고 내심 놀랐는데, 청결해진 매점을 사용할 수 있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대자보 한 장 안 붙어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소통과 토론의 공간은 아닌 듯. 그러나 조그만 대자보 논쟁, 「게시물 부착 금지」와 「대자보 절취 금지」만이 소통없는 관악의 허공에 메아리치더라.



선거 브로커에게 말하지 말자

金京愛(61년 齒大卒)김경애치과의원장

이 지구 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는, 우리의 맑고 푸른 가을이 왔다. 大 풍년이구나 더욱 반갑다. 「무덥고 긴 ~여름」이란 말은 지난 여름 같은 더위에 생겨난 것일게다. 자연이 공해에 찌들려 계절을 잊었나? 의심할 정도였는데 아직은 인간에게 가르칠 자연의 법칙을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구나.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 직전에 세계는 한바탕 다이애나 열풍에 휩쓸렸었다. 물론 지구위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다이애나의 명복을 빈다. 그런데 우리네 정서로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착한 이는 옥동자로 환생

財와 色을 겸비한 대영제국의 왕세자

비였던 그녀가 生의 마지막까지 같이간 사람이 하필 「돈」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했을까? 학술적으로 혹은 예술로 정신적인 면에서 더 명성 높은 분이었던 그녀와 신분에 걸맞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다는 죽음까지 동행한 걸 보면 두사람의 인연이야말로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다이애나는 저 세상 가서까지도 이 세상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으니 훌륭한 자선가임은 틀림없다.

남의 나라 일은 그렇고...우리는 지금 청와대 주인자리 때문에 나라가 술렁인다. 사람이 착하게 살다가 죽은 영혼에게는 훌륭한 가문의 胎가 무릉도원으로 보여, 그곳으로 들어가 귀한 댁 옥동자로 태어나는데,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은

영혼에게는, 동물의 胎가 고대광실로 보여, 얼른 그곳으로 들어가 미친한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들었다. 그런데 항간에는 요즘 청와대가 흥가라고 하는 말이 떠돌는데 우리네 중생들은 전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 그곳이 그리 좋아 보이는가?

지식인의 고견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아 올려, 그가 펼치는 정치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니 잘 판단해야겠다. 특히 사회에서 Opinion Leader가 되는 지식인들이 귀찮다고 남의 일처럼 선거 브로커들에게 떠맡기지 말고, 진솔한 의견들을 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뽑도록 이



끌어가야 할텐데...

단풍이 곱게 물들면 사방이 시끌벅적할테니 그전에 이 거대한 도시, 걸어다니면서도 「찌르릉」, 대중음식점에서도 「빠리링」, 공중변소 용무보면서도 「따리링」 거리의 소음공해를 벗어나서 아직은 조용한 설악산이나 한번 다녀와야겠다.

파출소장의 주책같은 눈물

尹聖惠(96년 行大院卒)경찰수사연수소



『맴맴맴 찌르르르』

파출소 앞 고목의 매미가 오늘따라 극성스럽게도 울어댄다.

태양이 작열하는 8월의 한낮. 이런 무더위에 도심 한복판 파출소에는 으레 각종 폭행사건 신고가 쏟아지기 마련이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부부싸움, 동네 싸움까지 갖가지의 사건들로 파출소는 금새 아수라장이 되곤 한다.

치매할머니의 단골 메뉴

오늘은 웬일로 조용히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 순간이었다. 파출소 문이 열리면서 힘겨운 걸음으로 들어오는 등굣길은 70대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적힌 팻말 앞 소파에 힘겹게 앉자마자 신세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글쎄, 오늘 아침 일어나 본체, 우리 엄니가 지어주신 옷 다섯 벌하구

패물하구 없어졌지 뭐여. 그년이여 그년. 그 간쟁이 부은 년이 남의 집에 태연히 들락거리면서 한 짓이 틀림없어』로 시작하던 「아이구 내 팔자야. 일찍 서방 여의고 자식새끼들 다 외면하드니만 이젠 동네 여편네까지...」하는 녀두리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러던 할머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어린 한이 할머니의 깊은 주름에서 짙게 배어 나오는 듯 꺾꺾하는 울음소리를 내며...

파출소장인 나는 평소 폭행사건에 잘 개입하지 않는 편이다. 나도 모르게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았다. 할머니는 그 관심이 반가운지 내 두 손을 꼭 잡고 또 다시 긴 사연을 늘어 놓았다. 끝이 없었다. 살아오신 많은 날들에 겹겹이 맺힌 한을 풀기라도 하듯...

할머니의 그칠 줄 모르는 푸념에 드디어 참을성 많은 직원들도 재촉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일시, 장소 등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나는 그런 직원들에게 눈짓으로 내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두 손이 잡힌 채 그 한 많은 사연에 나도 모르게 푹 빠져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주책같은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린 것이다. 눈이 커지며 놀라는 직원들의 머리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한 많은 사연에 푹 빠져

파출소장이라 하면 관내 주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아버지같은 존재이므로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행동했던 나였다. 그러므로 그날 내가 보여준 모습은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

었을 것이다.

할머니를 관찰 파출소에 인계하고 관내순찰하러 파출소를 나서다가 문득 거울앞에 서 보았다. 제복 어깨위에 놓인 무궁화가 눈 안 가득히 들어오면서, 이 무궁화는 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경찰」을 믿고 달아준 기대의 표상이라는 생각에 오늘의 내 눈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순찰하는 소장을 보고 안심할 주민들을 떠올리며 거울 속에서 방긋 웃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였다. 내 뒤통에서 낮은 직원 목소리가 던져지듯 들려왔다.

『알고보니 아까 그 할머니, 관찰 파출소에서도 허를 내두르는 단골 치매할머니래요』



公演

■소프라노徐慧妍독창회 -10월 21일 예술의 전당

이태리 Sondrio음악아카데미 교수로 재직중인 徐慧妍(86년 音大卒)동문이 예술의 전당과 한국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97 재의 유명연주자」로 초청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창



회를 갖는다.

이태리 언론에서 「황금의 목소리」, 「매력적이고 강렬한 완

숙한 목소리」 등으로 극찬받은 徐동문은 이날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안톤 파다노)와 협연으로 베르디, 드보르자크, 푸치니, 마스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新刊

■한강의 流燈

- 한국공간시인협회



丁丑年을 맞이하여 한국공간시인협회(회장 尹鍾燦·57년 文理大卒) 회원 1백56명이 지난 1년동안 정성껏 빚어낸 시를 각기 두편씩 모아 詞華集 「한국공간시인협회 대표시선」 제7집을 펴냈다. (한강출판사刊·값7,000원)

■이름없는 것들을

— 張潤宇 著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張潤宇(62년 美大卒) 동문이 등단 35주년 및 회갑 기념으로 9번째 시화집을 출간했다.

화가, 금속공예가,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張동문은 이번 시화집에서 70여편의 시와 미술작품을 함께 선보였다. (토우刊·값 7,500원)

■다시 한번 강가에 서다

— 李彰國 著



이 그동안 틈틈이 집필해온 30여편의 수필을 한 권에 담았다. 李동문은 이 책을 통해 수필이 단순한 신변잡기나 신세타령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사로잡는 수준 높은 장르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종문화사刊·값 6,500원)

■언론과 개인 법익

— 朴容相 著



다양한 미디어가 방대한 정보를 쏟아내는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 신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는 언론과 법학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朴容相(67년 法大卒·헌법재판소 사무차장)동문은 이 책에서 표현 행위가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법적 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면서 각국의 관례를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사刊·값 30,000원)

■坡州民謠論

— 李素羅 著

청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李素羅(68년 法大卒·문체부 문화재전문위원)동문이 87년부터 파주지역 민요를 채보 완료해 CD와 함께 종합해 놓았다.

이 책에 수록된 악보 2백23곡 중 헤이리소리, 논김 방아타령,

우야소리 등 3곡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내고장의 노래」 항목에 별도로 배정했다. (파주문화원刊)

■은빛 물고기

— 尹英姬 著



8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허릿병」으로 등단한 尹英姬(72년 文理大卒)

동문이 8년만에 첫 창작집을 펴냈다. 13편이 수록된 이 책에서 尹동문은 우리 일상의 고통과 단절의 기억, 아픔의 흔적들을 어린아이, 청년, 주부, 노인, 외국인 등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다. (살림刊·값6,500원)

■프랑스어 작문연구

— 金眞秀 著



서경대학교 불어교수인 金眞秀(85년 大學院卒) 동문이 프랑스어로 글을 써 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열번째 저서를 펴냈다.

金동문은 이 책속에 상송과 더불어 프랑스 도서관, 미술관, 샤페인 등에 대한 설명을 소개해 놓아 흥미를 더해준다. (三志社刊·값9,000원)

(정리=安興燮기자)

9월호를 읽고

관악산 등반대회 적극적인 홍보를...



해마다 단풍철이면 총동창회가 주관하여 동문가족이 함께 하는 등반 모임이 있다. 나는 이 모임의 참가를 위해 모든 일정을 이에 맞추어 조정한다.

내가 이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는 첫째,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이고 둘째, 모교는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토록 나를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은사님들의 안부와 절친했던 동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본 행사가 더욱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

를 해서 동문 결속을 크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高俊植(55년 師大卒)동작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명예상담위원장

북한에 생존한 동문 동태 파악해 주기를



우리 나라가 분단된 지 거의 50여년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필자는 감히 북한에 생존해 계시는 우리 동문들의 동태를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힘 닿는 대로 소개해 주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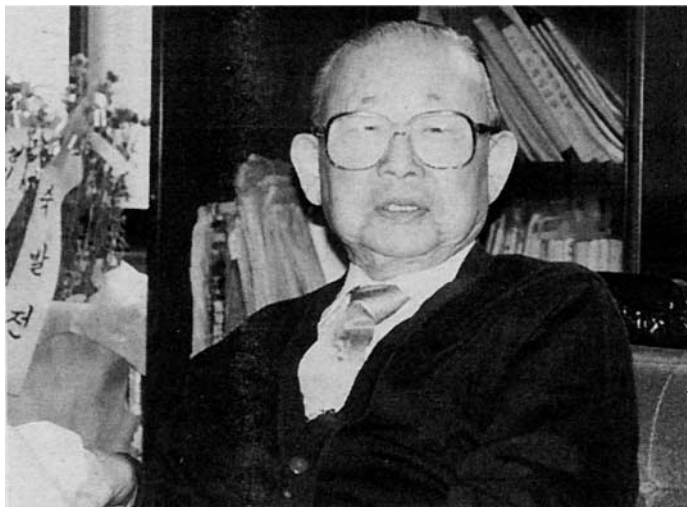
과거에는 금기시되는 문제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관찮은 시기가 된 것 같아 이 글을 쓴다.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에 일조하게 될지 모르겠다. 李炳起(63년 藥大卒)자원약국 약사

동문기고

五大幸福에 대한 小考

田溶星(50년 文理大卒)변호사



나는 파란 많은 근 80평생을 살아 오면서, 혹은 성공도 하고, 혹은 실패도 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손들이나, 장차 이나라의 주인공이 될 후손들에게 최후의 부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큰 부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또 벼슬자리에 올라 달라는 부탁도 아니다. 보다 차원이 높고 더 중대한 부탁을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음과 같이 권한다. 行有餘力 則以學文하라고, 즉 「일을 하다가 여력이 생기면 글을 배우라」는 말이다.

공자(孔子)는 배우기만 해도 부족하고, 생각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學以不思則罔 思以不學則殆 즉, 배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배우기를 반복하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어렵고 위태롭다는 뜻이다.

지금은 학문도 분업화하여 세밀하게 되어 있다. 어떠한 직업이든 그 방면의 學이 있다.

단 생활을 해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일을 도모하고 행사하고 협동하여 이루기 때문에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①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대할 것.

中庸에 不誠無物이란 귀절이 있다. 즉 성실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임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은 모든 事案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② 언어행동을 겸손하게 할 것.

백년을 가약한 부부간에도 설화사건으로 천륜을 끊고 不目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口之禍門이란 古言의 실증이다. 또 已髮之矢란 속담이 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회수할 수 없

건강한 몸·풍부한 지식·화목한 가정

인간 관계·順理의 생활이 절대 가치

같은 부탁이다.

첫째, 건강한 몸 둘째, 풍부한 지식 셋째, 화목한 가정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넷째, 원만한 인간관계 다섯째, 순리의 생활 특히 노력, 용기, 인내, 반성, 성실, 사회봉사.

위의 다섯가지 부탁 내용은 그 하나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가치를 가진 행복의 5대 요소다.

다음은 5대 행복을 분류하여 그 내용과 성취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행복은 건강한 몸에서 얻는 것이다.

특히,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것과 심신의 안정, 신선한 공기, 일광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2. 행복은 풍부한 지식에서 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학교에서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여야 한다.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수록 책 읽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論語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다

정치학, 경제학, 문학, 철학, 행정학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근자에는 대통령학도 있다고 한다. 이런 때에 공부하지 않는 정치인 또는 공직자는 실격자요, 낙오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얻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돈이 많은 것도 행복이요, 큰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도 행복이요, 부부간의 정의가 좋은 것도 행복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돈이 많다고 반드시 그 사람 행복의 전부가 아니며, 큰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 행복의 전부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임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의가 좋아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우면, 그것은 모든 행복 중에 제일 큰 비중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4. 행복은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얻는 것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 사회의 실정이다. 태고의 부족사회때 부터 집

다는 뜻이다.

③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

무릇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고집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즉 아무리 言正理順한 말이라도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만 한다면 그의 감정을 유발하여 의외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량과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

타인을 대할 때는 특히 언어와 행동을 신중히 하여 추호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다.

⑤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로 대할 것.

웃음은 상대방에게 환영 또는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한 말과 같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의미에서도 무표정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첫인상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

訓民正音 창제정신

올게 계승하자

南廣祐(50년 文理大卒)한국어문연구회장



올해는 世宗탄신 六百周年이다. 訓民正音은 「국어는 中國과는 다르다. 漢字 모르는 愚民을 위해 正音 28자를 만들어 쉽게 익혀 나날이 씬에 便安케 하고자 할 따름」이란 自主的이고도 愛民的 聖慮에서 창제된 것이다. 正音を 이 용해 나온 첫 作品인 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曲·釋譜詳節 등이 모두 國한混用인데 다만 月印·釋譜에는 布教차원에서 누구나 읽기 쉽게 讀音이 달려 있을 뿐이다. 正音창제가 한글전용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는 御製序文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한글전용정책으로 漢字 섞인 책을 읽지 못하게 되고 신문 漢字에는 모두 讀音을 달아주고 있다. 애국가에 나오는 漢字말을 漢字로 쓰게 했는데 14~16년동안 교육을 받은 大卒자들이 江山 24명, 東海 39명, 大韓 64명, 三千里 108명의 誤答이었음은 충격적.

뿐만 아니다. 각급학교 학생 각 백명씩 5백명에게 받아쓰기 50問項중 誤答率 40% 이상이 17項이요, 전체 誤答率이 31%나 된다는 통계가 있고, 높은밥 82%, 샷바느질 41%, 끼얹은 물 38%라는 誤答통계도 있다. 過多한 받침,

語源(형태소) 밝히기의 소산 물이다.

世宗은 쉽게 읽혀 日用에 便케 하고자 할 뿐이라 했고 正音해례본에는 八終聲으로 可足用이라고 했으며 鄭麟趾 序文에도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깨칠 수 있다」고 한 한글이다.

뿐인가. 人名·地名 등 전통적으로 國音으로 읽던 慣行 즉 「동경·대관·이등박문」이나 「북경·양자강·강택민」 등을 현지음으로 읽자는 것도 주체사상의 망각이요, 漢字를 쓰지 않겠다는 한글전용론자의 발상에서 온 것이다. 外交上 필요에서 현지음으로 쓰는 것은 좋다. 日本에선 「趙治勳」 漢字표기에 日本漢字音으로 讀音을 달고 있다.

또 있다. 한글전용 교육으로 표준발음 특히 長短音이나 된소리 발음혼란은 위험수위를 넘어 傳統性이 너무 훼손되어 있다. 「道峰區 富平」의 「道·富」의 긴소리는 완전히 짧은 소리로 굳어진 듯하고 백화점 승강기의 여승무원의 발음은 하나같이 「이층 사층 오층」의 二·四·五는 모두 짧은 소리다.

「정가」에는 「丁가 鄭가 定價」이 있고 「강권」에도 「強權 強勸」이 있다. 이들이 각각 발음이 다른데 전후 文脈으로 알 수 있다는게 전용론자들의辯이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東北亞時代가 아닌가. 漢宇文盲으로 우리만이 뒤질 수는 없다.

지면 약간 무리한 소청도 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거절하기가 어려우니 자연 성사될 것이다.

5. 행복은 順理의 생활에서 얻는 것.

① 순리의 생활과 정신관계
순리의 생활이란 자기 양심과 正道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 것이며, 동시에 정신까지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順天者는 흥하고, 逆天者는 망한다고 한 옛 성현의 가르침이 있다. 즉 천리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은 흥하고, 천리에 역행하여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順天의 天은 正道를 비유한 말인데 근자 정치에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② 순리의 생활과 건강관계
특히 용기, 노력, 인내, 반성, 성

실, 사회봉사.

순리생활은 인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모두 건전하게 하므로 인간의 행복 중 기본적인 행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사는 용기와 노력과 인내와 반성이 성공의 모체며 원동력을 알게 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후손교육지침인 동시에 행복의 비결을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서 항상 명심하고 준수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며, 대인관계는 원만할 것이요, 순리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무한한 행복감과 희망에 넘치는 마음으로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교수 13분이 지난 8월 30일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국내 영어사 발전에 크게 기여

32년 평남 강서 출생인 金寅淑교수는 57년 모교 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하여 주로 영어음운 및 구문의 통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활동을 주도하며 후학 양성과 한국 영어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영어사학회장과 영어영문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교수는 『사회과학이나 공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영역에서든 철학과 역사의식이 없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학문의 근본은 인문학이므로 무엇보다 인문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7년 5개월이라는 최장기 근속으로 퇴임한 金교수는 『인생을 배우는 데 전념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寅淑교수 인문대·영어영문학

과학의 대중화 위해 힘쓸 터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濟琬교수는 32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58년 모교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에모리대에서 석사학위,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2년 모교에 부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사업」인 AID사업의 부위원장으로서 자연대의 육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9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과학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金교수는 『AID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다운 건설을 당시 주변의 안목 부재로 인해



金濟琬교수 자연대·물리학

실행시키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저서 「겨우 존재하는 것들」로 과학에의 친숙한 접근을 유도했던 金교수는 『퇴임 이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우리 지질학계를 이끈 주역

32년 충북 청주 출생인 朴喜寅교수는 56년 모교 문리대 지질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동경교육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2년 모교 사범대 교수로 부임하여 자연대 부설 광물연구소장, 한국지구과학회 회장, 대한지질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등을 역임하고 과학기술봉사단 지구과학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지질학계를 이끌어온 주역인 朴교수는 일본 자원지질학회 논문상과 국내 운암지질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변 모두 광물 아닌 게 없고 모교만 해도 몇억년 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무도 풍화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한 지질학을 얘기하는 朴교수는 순수학문이 세속적 학풍에 밀려 시들해지는 풍조를 안타까워했다.



朴喜寅교수 자연대·지질과학

통계·관리경제학 기틀 마련

金正年교수는 32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55년 모교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게이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9년 3월 모교에 부임하여 경영연구소장, 경영대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金교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구축, 교수활동과 연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 학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통계학, 관리경제학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여 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한 金교수는 퇴



金正年교수 경영대·경영학

직 후에도 일본의 한 사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조교제도는 인적 자원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사적인 일이 아닌 학문활동의 영역에 도입하면 엄청난 학문적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콘크리트학회 설립에 공헌

32년 서울에서 태어난 鄭日榮교수는 55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2년 모교에 부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오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일반저술 및 기술교재 18권, 1백30여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상,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80년 모교 정문설계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鄭교수는 재직시절 콘크리트 재료 연구에 매진, 국내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교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해외 연구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콘크리트 학회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국 콘크리트 협의회와 교류하고 있다. 鄭교수는 후학들에게 『개인욕심보다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꾸준히 학문과 기술을 연마할 것』을 당부했다.



鄭日榮교수 공대·건축학

鄭교수는 후학들에게 『개인욕심보다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꾸준히 학문과 기술을 연마할 것』을 당부했다.

고분자학 발전의 기반 굳혀



安泰琬교수 공대·공업화학

『퇴임 후 전부터 해왔던 서예와 사진촬영 등의 취미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32년 경남 함안 출생인 安泰琬교수는 56년 모교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즈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5년 모교 응용화학학과 조교수로 부임, 1백10여 편의 학술연구 논문과 「대기화학」, 「고분자화학」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安교수는 한국고분자학회, 국제순수응용화학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고분자학계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했다.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한 바 있는 安교수는 『해의 연구소와의 교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활발한 산학협동의 모습이었다』며 『우리나라의 공학도 공허한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기술 연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 조세법 교육 위상 높여



李泰魯교수 법대·사법학

퇴임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李泰魯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상과대학, 뉴욕 콜롬비아 법과대학 등 여러대학에서 유학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전공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32년 경북 예천 출생으로 54년 모교 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李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학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64년 모교 법대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콜롬보 자문회의에서 문교부 대표로 참가했으며 교무부처장, 법학분관장, 한국국제재정협회 이사장,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교수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선두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후학들에게 조언했다.

우리나라 식품학계의 산증인



安承堯교수 생활과학대·식품영양학

安承堯교수는 55년 모교 농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식품공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할 경력을 갖고 있다.

70년 모교에 부임하여 식품영양학과장, 생활과학대학장, 농화학회장, 한국식품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安교수는 우리나라 식품학계의 산증인이자 학계를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많은 연구 논문을 포함하여 「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저장」 등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관악이라는 공간에서 후회없이 살았다는 安교수는 후학들에게 『서울대인이 온 국민의 선망과 기대를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봉사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면서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번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고 한 발짝 물러나는 양보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융의 분석심리학 국내 첫 소개



李符永교수 의대·의학

李符永교수는 32년 황해도 봉산 출생으로 59년 모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스위스 CGJung연구소 수료 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부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융학과 분석가로서 분석심리학을 국내에 소개, 발전시키면서 정신치료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문화정신의학, 정신병리현상학에 관해서도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긴 李교수는 『퇴임 후에도 제자들과 「한국 융 연구원」을 설립하여 분석심리학과 교육학 연구를 계속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李교수는 후학들에게 『정치나 행정보다는 학문에 먼저 눈뜨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으며 『연구할 능력이 있는 교수를 그냥 나이가 차다고 강제퇴임 시키는 우리 관례는 좀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시되어 온 정년퇴임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농업기계학 발전에 큰 역할



鄭昌柱교수 농생대·농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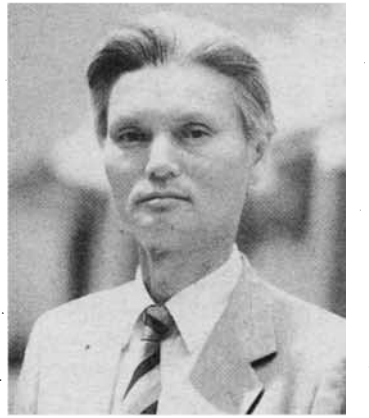
32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鄭昌柱교수는 57년 모교 농대 농공학과를 졸업, 미국 캔사스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농생대학장, 농공학과장 및 2회에 걸쳐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鄭교수는 학문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면서 1백4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낙후되어 있던 우리나라 농업기계학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鄭교수는 퇴임 후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많은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할 생각이라며 농공계 후배들에게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전공학문을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교육과 체계정립에 주력



尹錫橋교수 사대·사회교육

32년 경북 대구 출생인 尹錫橋교수는 56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에 부임하여 사회교육과의 체계를 갖추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정치학계, 교육법학계 및 사회철학회 등의 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면서 한국사회교육학회 이사, 민주시민교육협의회 공동대표, 한국독일학회 부회장을 맡아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의식고취에 앞장섰다.

尹교수는 『사범대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교사를 재교육시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며 사범대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자로서 내세울만한 업적은 없지만 교육자로서는 후회없이 살았다』고 피력한 尹교수는 『2세 교육이 잘못되면 발전도 없다』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려했다.

「핵의학」 전문분야로 발전시켜



高昌燮교수 의대·의학

32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高昌燮교수는 53년 모교 문리대 의예과를 수료하고 일본 쇼와의대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63년 외래강사로서 처음 모교 강단에 선 高교수는 79년 내과학교실 정교수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핵의학을 독립된 학문 분야와 진료 전문과목으로 발전시키는 데 산파역할을 했다.

재직중에는 대한핵의학회장, 대한내과학회장,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高교수는 『의학은 자연과학적인 학문이며 의료를 통해 건강과 질병을 돌보기 위한 특수 종합분야 학문』이라며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의대교수는 문화와 인성 교육을 힘쓰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30년간 공중보건의 초석 다져



許 程교수 보대원·보건학

32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난 許 程교수는 57년 모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석사학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許교수는 65년 모교에 부임하여 보건대학원장, 대한예방의학회장,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의학연구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86년 과학기술 유공자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바 있는 許교수는 보건학계의 주역으로서 저술활동도 활발하여 「서양보건사」, 「에세이 의료한국사」,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보건행정학원론」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만년에는 한학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의학에 몰두한 許교수는 『문학이 꿈이었으나 보건학을 전공하여 한국전쟁 후 건강 불모지에 공중보건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 오히려 보람이 됐다』고 말했다.

(變)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8월 1일~9월 5일·一般:7월 30일~9월 5일〉

이 사

◇人文大學

▲서원석⁷⁸한려개발대표이사

◇家政大學

▲박현순⁷³KBS국제국 부장
▲유영주⁶¹경희대가정대학장

◇工科大學

▲강명순⁴⁶한양대 명예교수
▲김규오⁶⁴유중ENG 대표
▲김병준⁶⁴삼화기업 사장
▲변정근⁵⁷세경전기 회장
▲오승환⁷¹바이엘코리아이사
▲원준희⁵⁸신우ENG 고문
▲윤종량⁷¹럭키ENG 이사
▲정순착⁶³선경건설대표이사
▲한수은⁵⁹경화ENG 회장
▲허명렬⁶⁹덕산ENG 부사장

◇農科大學

▲유 황⁶⁰제일모피(주) 감사
▲유용률⁷⁴성보화학(주) 부장
▲이재기⁵⁷동암토건(주) 대표
▲장우상⁶⁷한국청소년남연맹

◇文理科大學

▲오영일⁶⁵우일정공대표이사
▲윤 식⁶⁴前산업연구원
▲임병석⁵⁸前국제문제연구원
▲조강래⁶⁶구영상사전무이사

◇美術大學

▲김명호⁵⁹덕성여대 교수

◇法科大學

▲김동건⁶⁹대법원재판연구관
▲김보근⁶⁷건설교통저널사장
▲김상갑⁷³한국중공업 이사
▲김성수⁶⁵변호사
▲김의식⁶⁴롯데그룹 전무
▲김중건⁴⁹변호사
▲민좌기⁶⁴한서운수상임고문
▲박석인⁷²금호건설법무실장
▲석동준⁶⁸대구지법 과장
▲송준채⁶⁸한국은행 부국장
▲신운환⁷⁶특허청특허연수원
▲신장순⁶¹前유정상사 사장
▲윤주원⁶⁵덕양산업대표이사
▲이 돈⁶⁵시네마당구장대표
▲이동명⁷⁹대구지법 지원장
▲정덕홍⁷²서울지법부장판사
▲정병무⁶²대림ENG 고문
▲정옥균⁶²前범양화학 대표
▲정해운⁵⁷경기대 교수

▲한영희⁶⁵한국상사 사장
▲황경진⁶⁶신계무역 회장
▲황창섭⁶⁷전화번호부 상무

◇商科大學

▲강남언⁶²공인회계사
▲김웅렬⁶³유성기업사 사장
▲김종국⁶⁷부안터미널 대표
▲노병태⁶⁸前현대목재산업
▲박만옥⁶²제주은행 전무
▲박찬문⁶⁷전북은행 은행장
▲박종아⁶⁶공인회계사
▲유용해⁶¹YH.WOO 회장
▲유희춘⁶⁵한일이화대표이사
▲이연재⁶⁶현대중공업 전무
▲정교관⁶¹다림원 원장
▲최경남⁶⁶쌍인 대표이사
▲한재봉⁶⁴(주)파월 회장

◇獸醫科大學

▲김선중⁶⁶서울대수의대학장
▲최찬영⁷³신진동물병원대표

◇藥學大學

▲김태현⁷⁵부광약품 이사
▲서정상⁴⁹전북일보 사장
▲이기평⁶⁴수정약국 약사
▲이원표⁶⁶한일약품공업실장
▲하만화⁶⁵한진약국 약사
▲허 상⁶²불광약국 약사

◇醫科大學

▲고영박⁷⁰강남성심병원과장
▲김예원⁷⁴내과의원장
▲문진수⁷³가야자모의원원장
▲박영하⁶⁰노원을지병원회장
▲서동엽⁷⁵경찰병원 부과장
▲이동우⁶⁶외과의원장
▲정종환⁶²마산복음병원
▲최규완⁶¹삼성의료원 소장
▲최병인⁷⁴서울대 교수
▲추연명⁷⁹해화진단방사선과

◇齒科大學

▲김병찬⁷⁵김병찬치과의원장
▲김봉호⁶⁰김봉호치과의원장
▲박영숙⁶⁵사전치과병원장
▲유세청⁶⁵유치과의원장
▲윤학영⁶⁸윤학영치과의원장
▲이연호⁶⁶청조치과의원장
▲이종문⁶³이종문치과의원장
▲임장섭⁶⁸임치과의원장
▲임채균⁶⁷임채균치과의원장
▲정원용⁶⁸정원용치과의원장
▲현기년⁶⁴현기년치과의원장

◇經營大學院

▲황길태⁶⁷경북공무원교육원

일 반

◇人文大學

▲김대성⁸⁰ ▲김범준⁶⁰
▲김용철⁸⁶ ▲김주연⁸⁶
▲문안나⁸⁶ ▲박연수⁷⁷
▲성정용⁸⁸ ▲안병용⁸⁹
▲원종례⁷⁷ ▲이상규⁸⁸
▲이승희⁹⁴ ▲임수근⁸⁷
▲정제문⁷⁶ ▲정회훈⁸⁵

◇社會科學大學

▲김정수⁷⁸ ▲손영준⁹³
▲송명달⁸⁸ ▲신창석⁹¹
▲이용욱⁹³ ▲이인재⁸⁵
▲전재덕⁹⁴ ▲최재호⁸⁹
▲최준애⁸⁶ ▲최홍윤⁸⁴
▲한상덕⁹¹ ▲홍석진⁷⁸

◇自然科學大學

▲강병국⁹⁵ ▲강주석⁸⁸
▲문정원⁸⁹ ▲박동완⁷⁷
▲박찬준⁷⁶ ▲서의훈⁷⁸
▲안주홍⁸⁴ ▲이승훈⁸⁹
▲장병욱⁸⁷ ▲장종만⁷⁶
▲정관영⁸⁵

◇家政大學

▲김기진⁸⁰ ▲김화자⁶³
▲김효순⁸² ▲류재수⁸⁷
▲심재은⁹⁴ ▲오경숙⁸²
▲이선영⁸² ▲이정선⁹²
▲정성혜⁸² ▲정순자⁷⁴
▲정태숙⁸⁴ ▲조길수⁷⁸
▲조혜영⁸⁰ ▲주정일⁴⁶
▲최영희⁷⁶ ▲추희경⁹²
▲한호경⁷⁴

◇看護大學

▲김성주⁶⁵ ▲김영숙⁶⁵
▲박인례⁷⁹ ▲박혜숙⁶⁸

◇經營大學

▲김상범⁸⁹ ▲서승준⁷⁸
▲신윤철⁷⁸ ▲안화주⁸⁸
▲염옥용⁶⁶ ▲유 진⁶⁶
▲유인식⁹⁶ ▲윤유영⁹⁰
▲이상경⁸⁶ ▲이희준⁷⁸

◇工科大學

▲강근배⁷⁴ ▲강남식⁷⁷
▲강명구⁹³ ▲강춘식⁶⁹
▲강호중⁷¹ ▲고영관⁹⁰
▲고유진⁷⁸ ▲공영민⁹⁴

▲곽덕훈⁷⁶

▲구경현⁸¹
▲권영택⁶⁹
▲김경석⁸²
▲김광은⁶⁷
▲김동주⁷³
▲김명린⁶⁵
▲김순일⁷¹
▲김영성⁹²
▲김용세⁸³
▲김원태⁸⁶
▲김인명⁶²
▲김종각⁶⁵
▲김종한⁶⁷
▲김진구⁹²
▲정동욱⁹⁴
▲정두근⁸⁰
▲정세영⁹⁰
▲정원배⁶⁶
▲정해중⁷⁰
▲조성제⁸⁹
▲조충취⁷⁰
▲지태환⁶⁷
▲천유식⁶⁹
▲최경진⁷³
▲최동규⁷⁰
▲최우영⁸³
▲최의원⁵⁸
▲최정우⁸⁸
▲최진영⁸²
▲최창환⁹⁵
▲추현출⁶¹
▲하태권⁹¹
▲허영진⁹³
▲황기현⁹¹
▲황철웅⁶⁶

◇農科大學

▲곽원석⁷⁵
▲김기영⁸⁶
▲김병우⁸⁵
▲김진무⁶⁹
▲김한성⁹²
▲김형준⁷⁶
▲김홍만⁹³
▲김희준⁹⁰
▲나인구⁵⁷
▲노환영⁶²
▲문종신⁹⁰
▲박광표⁵⁴
▲박명식⁷³
▲박성현⁷⁵
▲박영규⁸⁷
▲박인수⁸⁴
▲박종태⁶⁵
▲백원규⁵⁶
▲서동수⁷³

▲곽문규⁸¹

▲구용회⁸³
▲권혁주⁷⁸
▲김광길⁶⁶
▲김기형⁸¹
▲김만기⁸⁶
▲김성수⁹¹
▲김시환⁷⁰
▲김영휘⁵⁶
▲김원일⁶⁵
▲김윤제⁶⁶
▲김재익⁷⁵
▲김종성⁹⁴
▲김종호⁶⁴
▲김진규⁸⁵
▲정동철⁹²
▲정민철⁹⁰
▲정신욱⁹⁵
▲정태신⁹²
▲조명호⁷⁸
▲조성호⁹¹
▲주재취⁷⁹
▲차정식⁶⁹
▲최갑석⁵⁵
▲최기석⁹¹
▲최용환⁹¹
▲최원은⁴⁸
▲최일동⁷⁹
▲최중식⁸²
▲최찬호⁶⁴
▲최태선⁷⁶
▲편영준⁸¹
▲허낙기⁹³
▲홍기준⁷³
▲황준석⁹³

▲서전석⁸¹

▲서흥원⁹¹
▲손연규⁷⁹
▲신승수⁹⁵
▲심이섭⁷⁷
▲안동섭⁸³
▲안희영⁸²
▲오규환⁹⁴
▲오명섭⁶⁵
▲오양균⁶⁶
▲오정일⁶⁸
▲유일상⁵⁷
▲유하영⁷⁴
▲유화영⁹²
▲이관용⁹¹
▲이권섭⁷³
▲이근배⁷¹
▲이동규⁹⁰
▲이상우⁸³
▲이세중⁶⁵
▲이영용⁹⁴
▲이영한⁸¹
▲이재광⁶⁰
▲이정혁⁸²
▲이종승⁶⁶
▲이주협⁸⁸
▲이충구⁶⁷
▲이후상⁶⁷
▲이희도⁶¹
▲임상전⁶²
▲장창학⁷⁴
▲전익성⁹⁰
▲김영주⁷⁵
▲김종무⁶³
▲김희창⁸²
▲남상운⁸⁴
▲노회진⁸⁹
▲민중석⁹⁴
▲박철웅⁹⁵
▲백운하³⁷
▲송기중⁶²
▲안완식⁶⁶
▲우기원⁶⁰
▲윤재호⁷³
▲윤학주⁷³
▲이길남⁶⁹
▲이병진⁶⁶
▲이석호⁷⁰
▲이영호⁶⁹
▲이재연⁵⁵
▲이태일⁷⁹
▲이희문⁷¹
▲임백빈⁷⁷
▲정병기⁵⁷
▲조규태⁷⁸
▲태용문⁸⁶

▲서종교⁹²

▲손귀현⁸¹
▲신동현⁹⁵
▲신지수⁴⁵
▲안광렬⁶⁸
▲안홍섭⁷⁹
▲양지원⁷³
▲오동일⁷⁹
▲오세기⁶⁹
▲오재화⁶⁶
▲유완상⁷¹
▲유재문⁷⁷
▲유홍렬⁶⁴
▲이경훈⁶⁵
▲이광우⁷⁷
▲이근모⁷⁹
▲이기중⁶⁰
▲이명렬⁸⁴
▲이성률⁷²
▲이승훈⁷⁴
▲이영준⁵⁷
▲이원호⁷⁸
▲이재영⁶²
▲이종렬⁸⁴
▲이종훈⁹³
▲이철우⁸²
▲이호현⁵⁵
▲이흥재⁸⁰
▲이희성⁷⁸
▲장경환⁵⁷
▲전영웅⁸¹
▲정 윤⁹⁰
▲김정수⁶⁴
▲김태순⁵⁶
▲남기형⁸⁸
▲노준정⁵⁵
▲문장달⁶²
▲박철수⁸⁹
▲박형일⁹⁰
▲성삼경⁶⁵
▲신재익⁶⁴
▲안희철⁷²
▲유병세⁵⁵
▲윤충섭⁶¹
▲이기창⁵⁵
▲이도천⁶⁰
▲이복진⁸⁰
▲이수성⁶³
▲이재근⁴¹
▲이종만⁸⁰
▲이흥기⁷¹
▲임계숙⁶⁴
▲정명래⁷⁸
▲정순오⁷⁸
▲정정민⁶⁶
▲조진태⁵⁸
▲한춘연⁵⁶

▲홍순억④

◇文理科大學

▲강신성⑥ ▲고두영⑦
▲권동숙⑤ ▲김병진⑦
▲김사행⑥ ▲김성수⑤
▲김영노⑥ ▲김일수⑦
▲김장옥⑤ ▲김정환⑥
▲김철수⑥ ▲김형일⑤
▲김홍철⑥ ▲도태균⑦
▲문명호④ ▲박도순⑥
▲박동석⑦ ▲박명원⑥
▲박원우④ ▲박윤희⑦
▲박정국⑦ ▲방원석④
▲배광선⑦ ▲배두홍⑤
▲배복남⑤ ▲배성균⑥
▲서병현⑤ ▲서상일⑥
▲송덕진⑦ ▲신영균⑤
▲신창우⑤ ▲안철길④
▲엄기홍⑤ ▲오세웅⑤
▲오임철⑤ ▲이 건⑤
▲이강승⑦ ▲이기백④
▲이문규⑦ ▲이백규⑦
▲이병중⑤ ▲이재형⑦
▲이찬구⑥ ▲임인섭⑥
▲전익우④ ▲정용재⑤
▲정운용⑦ ▲정찬용⑤
▲조건식⑦ ▲조병창⑤
▲지정택⑦ ▲차주환⑤
▲채규희④ ▲최 흥⑦
▲최상일⑤ ▲최상현⑦
▲최상훈⑦ ▲최일욱⑥
▲최종락④ ▲하태권⑦
▲한기욱⑤ ▲한말숙⑤
▲홍성진⑤ ▲홍원희⑦
▲황원섭④

◇美術大學

▲강홍운⑤ ▲김 정⑦
▲김교만⑤ ▲김연미④
▲김용숙⑦ ▲김재광③
▲김진경⑦ ▲김창수⑤
▲김청자⑤ ▲김현실⑦
▲남경숙④ ▲박세원⑤
▲박주영⑦ ▲박지선③
▲박지혜③ ▲서석래⑤
▲서영숙⑥ ▲손복희⑦
▲손원갑⑥ ▲심문섭⑤
▲안재후⑤ ▲원묘희⑥
▲유연식④ ▲유제국⑥
▲이규성⑦ ▲이정희⑥
▲정수아⑥ ▲조상용⑥
▲조재경⑥ ▲최아자④
▲홍해숙⑦

◇法科大學

▲강승준③ ▲공영규④
▲구남수⑤ ▲구충희⑥
▲권형준⑦ ▲김복지④
▲김순평⑤ ▲김인승④
▲김주홍③ ▲김창국⑥
▲김철진⑥ ▲김형두⑥
▲김호룡⑥ ▲김희용④
▲남기춘③ ▲문성우⑦
▲민정기④ ▲박노정⑦
▲박병무④ ▲박종태⑥
▲박천서⑥ ▲백상현⑦
▲부구욱⑦ ▲신영수⑦
▲신조순⑦ ▲심의석⑥
▲오동수④ ▲우양구⑦
▲이동득⑥ ▲이성호⑥
▲이소라⑥ ▲이순복⑤

▲이용훈⑥

▲이재철⑦ ▲이종진⑥
▲이춘성⑦ ▲임완규⑥
▲장태규⑥ ▲정 창⑤
▲정광우⑤ ▲정기승⑦
▲정용달⑤ ▲조병직⑥
▲조인학⑥ ▲조창범⑥
▲최달곤⑥ ▲최영기⑥
▲한만기⑥ ▲한만수⑥
▲한세권⑤ ▲한용석⑥
▲홍동환④ ▲황보윤⑦

◇師範大學

▲국해웅⑥ ▲권경홍③
▲김명훈⑥ ▲김민정②
▲김선양⑤ ▲김숙희④
▲김흥기⑤ ▲나성환⑥
▲남기경⑥ ▲노영석⑦
▲문광식⑦ ▲박운서⑤
▲박정모⑦ ▲박정운⑥
▲박정자④ ▲박종석⑥
▲서정울⑤ ▲손수일⑤
▲송동수⑦ ▲송정현③
▲송춘영④ ▲신각범⑤
▲신관균⑦ ▲신찬우⑤
▲안온신⑤ ▲오건주⑥
▲오기세⑥ ▲오필석⑥
▲유석렬⑥ ▲이민태⑤
▲이상철⑥ ▲이석천⑤
▲이승원⑦ ▲이정자③
▲임억규⑥ ▲전영주⑦
▲전영호⑥ ▲조두진④
▲조철원⑤ ▲최 현⑤
▲최병진⑥ ▲한수인⑤
▲한주혁⑤ ▲홍용표⑦
▲황금연④ ▲황진한④

◇商科大學

▲강선필⑥ ▲김경모⑤
▲김기동⑤ ▲김동녕⑥
▲김문수⑥ ▲김용균⑥
▲김윤경⑤ ▲김윤일⑦
▲김재진⑥ ▲김정호⑦
▲김주남④ ▲김효석⑦
▲나중현⑤ ▲박상균⑦
▲박용덕⑥ ▲박정진⑤
▲박종형⑤ ▲서진호⑦
▲설 유⑦ ▲성낙후⑥
▲송인제⑥ ▲신문철⑤
▲신희창⑤ ▲안윤모⑤
▲양재국⑤ ▲유종백⑤
▲유한교⑤ ▲이영선⑦
▲이용석⑥ ▲이종백⑦
▲이흥근⑦ ▲임석현④
▲임종두⑥ ▲장세원⑥
▲정점식④ ▲정해운⑥
▲정희경⑤ ▲조용현⑥
▲태재렬⑦ ▲하지명④
▲한준석⑤ ▲허병우⑦
▲홍순태⑥

◇獸醫科大學

▲강석주⑤ ▲고의식⑥
▲권호윤⑥ ▲김일웅⑥
▲박내정⑥ ▲박만택⑤
▲박종명⑤ ▲안 훈⑤
▲윤석정⑦ ▲이강남⑦
▲임천복⑦ ▲장광호⑤
▲정진기⑥ ▲홍재창⑤

◇藥學大學

▲권영환⑤ ▲김성모⑦

▲김영길⑥

▲박문기⑤ ▲김재기⑤
▲송정현③ ▲박승무⑦
▲우용렬⑥ ▲옥 선⑦
▲윤승로⑥ ▲윤상철⑤
▲이승하⑦ ▲이민화⑤
▲이인순⑦ ▲이연택⑤
▲이현태⑥ ▲이준행④

◇音樂大學

▲고춘선⑦ ▲김경희⑤
▲김형순⑦ ▲노희영④
▲이학주⑤ ▲장창환⑥

◇醫科大學

▲강태현⑤ ▲고학중⑦
▲금인섭④ ▲김경래⑥
▲김광철④ ▲김기락⑦
▲김민석⑥ ▲김진국⑤
▲김충철⑥ ▲문영규③
▲문일영⑤ ▲박찬일⑥
▲배병주⑤ ▲손봉기⑦
▲신미자⑤ ▲이경훈⑥
▲이근후③ ▲이석환⑤
▲이진섭⑥ ▲장승명⑥
▲전예근⑤ ▲정승기⑦
▲정진우④ ▲주순오⑤
▲지선규⑤ ▲지창수⑤
▲한두호⑥

◇齒科大學

▲강호영⑤ ▲김 현⑦
▲김경남③ ▲김병린⑥
▲김병석⑤ ▲김병환⑥
▲김우철⑤ ▲김택근⑥
▲김학희⑥ ▲박상운⑦
▲박영길⑦ ▲박원배⑤
▲박태선⑥ ▲상기중⑥
▲서영수⑦ ▲성무경⑥
▲성철제⑦ ▲손범식③
▲신광희⑥ ▲안병관⑥
▲유세익⑤ ▲이교인⑦
▲이민영⑥ ▲이상신⑥

▲김재기⑤

▲박승무⑦ ▲김경희⑤
▲옥 선⑦ ▲노희영④
▲윤상철⑤ ▲장창환⑥
▲이민화⑤
▲이연택⑤
▲이준행④

▲이승연⑥

▲임창준⑥ ▲김동선⑤
▲최기채④ ▲김재경③
▲최동철⑦ ▲이주성⑤
▲황인서⑥ ▲정영자⑥

◇大學院

▲김동선⑤ ▲김용운⑥
▲김재경③ ▲양일석⑤
▲이주성⑤ ▲전민제⑥
▲정영자⑥ ▲정원박⑥

◇經營大學院

▲양해경⑦ ▲이훈용⑦
▲최갑석⑦

◇教育大學院

▲김기태⑦ ▲오철진⑦
▲현덕균⑦

◇保健大學院

▲김상옥⑥ ▲김숙자④
▲송선대⑦

◇司法大學院

▲김정길⑤

◇新聞大學院

▲김기덕⑦ ▲서강화⑦
▲이해성⑦ ▲정대수⑦

◇行政大學院

▲김구현⑥ ▲문병환⑥
▲임동남⑥ ▲최종문⑥
▲허재영⑥

◇環境大學院

▲송장복⑦ ▲최병천⑥

◇최고경영자과정

▲고권수③ ▲권영선③
▲김성철⑥ ▲김영환④
▲김정순⑤ ▲김준봉⑤

▲임우하⑥

▲제갈선영⑦ ▲김용운⑥
▲최동광⑥ ▲양일석⑤
▲호창진⑥ ▲전민제⑥
▲황효남⑥ ▲정원박⑥

▲민병수③

▲배강우④ ▲이경봉③
▲서영웅⑥ ▲이만희③
▲서호석⑥ ▲이연성⑦
▲신말업④ ▲장경작③
▲이상우⑥ ▲전태성⑥
▲유희수④ ▲정환철③
▲이희준④ ▲최 열②
▲윤성현④ ▲최왕언③
▲이광근⑥ ▲최진길④
▲이성길④ ▲한용외⑥
▲이종근④ ▲한정삼⑤
▲장익상⑤ ▲황기호③
▲정병호⑦
▲조용호④
▲최오길③
▲최진길④
▲한정삼⑤
▲황기호③

◇최고산업전략과정

▲김학형⑩ ▲양 명⑨
▲임복규② ▲최순범②
▲함남석①

◇국가정책과정

▲강부자③ ▲김경래⑧
▲김대연⑧ ▲김만기⑦
▲김영일④ ▲김주학③
▲김찬희① ▲노태극③
▲명영남③ ▲양재범⑤
▲오종태⑥ ▲유용근③
▲이갑진⑤ ▲이길암④
▲이양우⑥ ▲조범순③
▲조철권⑥ ▲조홍제④
▲최병길① ▲최상철③
▲최상필① ▲홍사임④

◇고급금융과정

▲김영준③ ▲김창경⑥
▲문홍식⑤ ▲윤홍식④
▲진귀봉⑥ ▲최승훈③

월계 = 21,020,000

누계 = 401,928,536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8월 1일 ~ 8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정성빈⑤

◇社會科學大學

▲김형식⑤

◇經營大學

▲이정원⑤

◇工科大學

▲강기철⑦

▲김홍연④

▲안정준④

▲정동현⑥

▲이종욱⑦

▲고현성⑥

▲서강석⑤

▲양태원⑥

▲허성구⑦

◇農科大學

▲김보한⑦

◇文理科大學

▲장종학③

◇美術大學

▲윤옥진⑥

◇法科大學

▲강대형⑦

▲손주찬②

▲이선우⑤

◇師範大學

▲김재현⑤

▲최은순⑥

▲최대만⑤

▲박상천⑥

▲연광석①

◇獸醫科大學

▲하재환⑥

◇大學院

▲강주해⑥

◇經營大學院

▲임순택⑤

◇保健大學院

▲오장수①

◇行政大學院

▲김성규⑦

◇최고산업전략과정

▲한미학⑤